

2023년 찾아가는 경상지역자활정책포럼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자활센터의 역할과 대응 방안

2023. 7. 12.(수) 14:00 ~ 17:00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회의실(10층)



| 주관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부산광역시자활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대구광역시자활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울산시자활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경남광역시자활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경북광역시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부산지부/ 대구지부/ 울산지부/ 경남지부/ 경북지부

| 주최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후원 |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2023년 찾아가는 경상지역자활정책포럼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자활센터의 역할과 대응 방안

2023. 7. 12.(수) 14:00 ~ 17:00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회의실(10층)



| 주 관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부산광역시자활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대구광역시자활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울산광역시자활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경남광역시자활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경북광역시자활센터

 **사업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부산지부/ 대구지부/ 울산지부/ 경남지부/ 경북지부

| 주 최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후 원 |  부산광역시

CONTENTS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자활센터의 역할과 대응 방안	07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광주지역 자활사업 사례	37
자활에서 사회서비스사업 수행의 필요성과 과제	55
경상북도 자활사업 사례 행복경로당 지원사업	61
광진구 자양4동의 어르신들의 삶	77
변화하는 사회서비스에 따른 자활사업의 역할과 방향	105

2023년 찾아가는 경상지역 자활정책포럼 개요

I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고령자 및 1인 가구 등 돌봄수요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확대되고 있음
- 특광역시자체 중 최초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부산시는 '부산형 통합돌봄'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복지 사업을 추진중임
- 자활사업 초기 공공영역 일자리(가사,간병 등 돌봄서비스)개척 경험과 구·군 단위로 돌봄 사업체 참여 중인 자활사업단 사례공유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확대되는 사회 서비스 제공자로서 적극적인 참여방안 모색코자 함

□ (추진 목적)

- 지역사회 돌봄대상자들에 필요한 각종 사회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지역자활센터·자활사업단·자활기업들의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방안 모색으로 참여자 일자리 창출 및 매출확대 도모
- 근로능력 저하로 시장경쟁 일자리창출이 힘든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공공영역의 지속적·안정적 일자리 제공
- 복지급여 수혜자에서 사회서비스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및 긍정적 마인드 형성을 통한 자활사업효과 거양

II 포럼 개요

- 주 제 :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자활센터의 역할과 대응 방안」
- 일 시 : 2023. 7. 12.(수) 14:00~17:00
- 장 소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10층 대회의실
- 주 최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주 관 : 부산광역시자활센터, 대구광역시자활센터, 울산광역시자활센터, 경남광역시자활센터, 경북광역시자활센터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부산지부/ 대구지부/ 울산지부/ 경남지부/ 경북지부
- 후 원 : 부산광역시

Ⅲ

세부일정

구분	시간	진행내용	비고
13:30~14:00 '30 접수 및 출석확인			
1부	14:00~14:03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03~14:05	■ 내빈소개	
	14:05~14:10	■ 인사말씀 - 정해식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	
	14:10~14:20	■ 축하 - 안경은 (부산시 사회복지국 국장) - 구창우 (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 협회장)	
	14:20~14:45	■ 주제발표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자활센터의 역할과 대응 방안」	이재정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원)
14:45~15:00 '15 휴 식			
2부	15:00~16:15	■ 토 론 - 김금현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광주지부 지부장) - 안혜경 (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대표) - 황진석 (경북광역자활센터 센터장) - 박용수 (서울통합돌봄추진위원회 위원장) - 이상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선임연구원)	■ 좌 장 전형미 (울산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6:15~16:35	■ 질의 응답	
	16:35~16:45	■ 정리 및 폐회	

주제발표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자활센터의 역할과 대응 방안

이재정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의 대응방안

책임연구위원 이재정

BDI 부산연구원
BUSAN DEVELOPMENT INSTITUTE

목차

- 01.** 인구 고령화와 사회적 여건 변화
- 02.** 사회서비스 개념, 추진 현황
- 03.**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추진 현황
- 04.** 통합돌봄 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참여 사례
- 05.**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대응방안

인구 고령화와 사회적 여건 변화

1.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적 돌봄의식 증가
2. 돌봄수요변화
3. 사회서비스 제도 변화
4. 부산형 통합돌봄과 (지역)자활센터

1

인구 고령화와 사회적 여건 변화

•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적 돌봄의식 증가 •

- 과거 노령, 질병,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던 사회보장제도(사회서비스, 사회보험, 공적부조) 등이 급격한 산업화와 사회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움. 대상자와 서비스 욕구 증가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신설, 서비스 확대가 진행되고 있으나, 사회 안전망 부족 현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 증가, 예기치 못한 자연 재난, 팬데믹 등 인구 및 기후 등의 새롭고 예기치 못하는 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사회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부산시 전체 예산의 42%상회)하지만 이에 따라 시민의 복지 체감도는 높아지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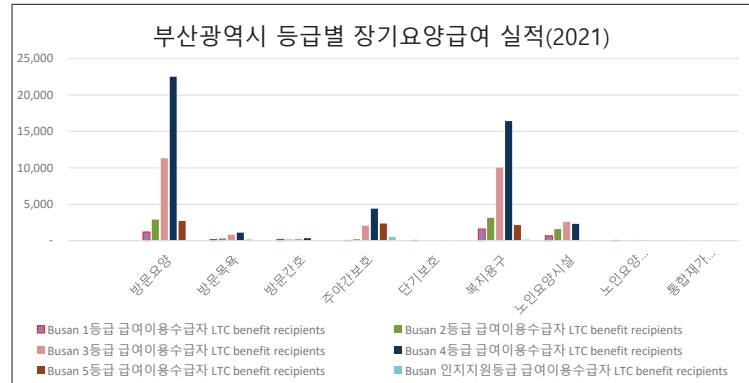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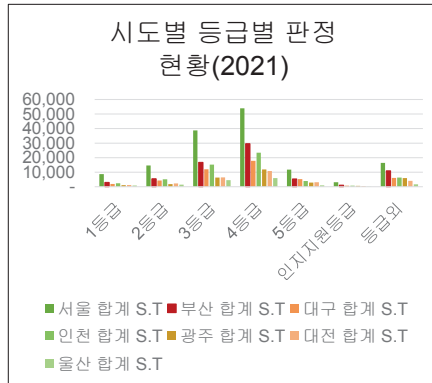
- 현행 노인돌봄 사회서비스는 주로 저소득계층(부산시 독거노인 66,808명, 노인맞춤돌봄 사업 참여 30,370명)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사회적 환경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특·광역시 중 인구소멸) 등을 반영한 서비스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외자, 가족부양자가 있거나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노인은 정부의 공적 돌봄 서비스 혜택에서 제외

2

인구 고령화와 사회적 여건 변화

• 돌봄수요변화 •



○ 선호하는 돌봄 형태 : 재가복지서비스(37.0%) > 요양시설/요양병원(34.4%) > 가족 도움(10.4%)

신중년(50~69세) 대상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가족의 도움을 받기 보다는 재가복지서비스나 시설(요양시설/요양병원) 등에서 돌봄을 받고 싶다고 응답, 노후에 자녀들에게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하는 성향이며 동시에 Aging in place 지향

자료: 이재정(2021). 신중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3

인구 고령화와 사회적 여건 변화

• 사회서비스 제도 변화 •

○ 급속한 고령화(부산광역시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중 21.8%, 매월 0.1%씩 증가)와 사회보험부담 증가(2023년, 건강보험료 12.81%)로, 사회보험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위기감과 함께 사회보험, 공적서비스 대상이 되지 못하는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이용 역차별에 대한 불만 증가

- 노인돌봄제도는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등급을 받아도 저급여(한정된 서비스)로 인한 돌봄 서비스의 공백 발생, 등급 외자 혹은 일반 및 하위 노인 등은 이용 가능한 서비스 부재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수행 기관과 사업 간 연계(민간시장 혼재, 공적 서비스 분산,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부족) 부족 등으로 필요한 서비스 이용 어려움, '사회적 돌봄'은 아직 우리사회에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음

○ 중앙정부에서는 '돌봄' 등 사회서비스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를 표방하고 있으며, 사회변화에 따라 다소 성격이 바뀔 수 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증가할 가능성 높음

-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
- 부산형 통합돌봄도 올해부터 저소득층이외 본인 부담 15% 책정, 국가 예산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사회활동센터 소득과 재투자 창출 가능, 직접 서비스 제공 역량 확보, 지역사회활동센터의 적극적 참여로 수익창출과 참여자 탈수급 방안 검토

4

인구 고령화와 사회적 여건 변화

• 부산형 통합돌봄과 지역자활센터 •

- 2000년부터 도입된 근로연계복지인 자활사업 수행기관은 다양한 사회서비스사업을 참여해 왔음
-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4대 바우처 사업(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 가사간병) 수행 경험
- 대부분의 민간영역의 사업(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외)은 대상과 사업을 연계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지역자활센터는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차별성을 가지며, 부산의 경우 다년간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역량이 있음. 또한 타시도 사례처럼 지역자활센터에서 지역통합돌봄에 참여하였으나 참여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지역자활센터 센터장(중간관리자급 이상) FGI 실시 결과,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가 다수
 - 구·군이나 복지관 등에서 필요시 단기간 수행하거나, 직접 보조금 수령이 불가하여 사업만 수행(복지관 예산 집행,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사업만 수행하는 하청 구조)하거나 참여기관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
- 본 발표에서는 부산형 통합돌봄 참여한 지역자활센터의 사례를 통해 역량을 확인, 연대를 통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향후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안 연구

5

사회서비스 개념, 추진 현황

1. 사회서비스 개념
2.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차이점
3. 정부의 사회서비스 추진 방향
4. 부산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수요·공급 현황 (2022년 말 기준)
5. 부산광역시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6

사회서비스 개념, 추진 현황

• 사회서비스 개념 •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2021. 6. 8.]

제3조(정의)

4. “**사회서비스**”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18호, 2021. 12. 21., 일부]

제2조(정의)

6.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사회서비스 개념, 추진현황

• 사회서비스 개념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제2조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3. 25.]

제6조(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사회서비스원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사회서비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사회서비스 개념, 추진 현황

• 사회서비스 개념 •

○ 개념

국가별,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 포괄하는 범위도 다양

- (광의)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주거, 고용, 환경 등을 폭넓게 포함
- (협의)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를 총칭

○ 특성

- Community Based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지역 주민의 니즈(needs) 반영
- Consumer Drive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복지분야에 “소비자 주권” 개념 도입
- Social Investment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사회투자적 성격

□

사회서비스 개념, 추진 현황

•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차이점 •

◆ 전통적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차이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국가	제3섹터 (지역사회 기반)
대상	수급자 등 빈곤층에 한정	서민·중산층까지 확대
서비스 내용	기본적 생활보장 서비스	기본적 생활보장 이외에 일상생활 지원·인적자본 확충 등 다양한 서비스
재정지원 방식	공급자 지원	수요자 지원
비용 부담	전액 국비 지원	본인 일부 부담
품질관리	국가 (일반적)	국가, 지자체,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개념, 추진 현황

• 정부의 사회서비스 추진 방향 •

- 현재 취약계층 위주의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
-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과 질 확충

■ 사회서비스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서비스
(개념) 사회(social) + 서비스(serve)
무형의 영역 · 노무 등을 제공하는 것(현금X, 물품X)
국민을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대상자 확대, 고품질 서비스 실현, 양질의 공급자 육성, 기반조성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부처별 고도화 추진



자활센터 연계하여 다세대·다세대·다세대 서비스 인프라 구축

*자활센터 활용 일자리 제공, 다세대·다세대 수요자 · 제공자 연결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 편입·환경부 융자사업 가능

11

사회서비스 개념, 추진 현황

• 정부의 사회서비스 추진 방향 •

-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시범사업 (사회서비스 다변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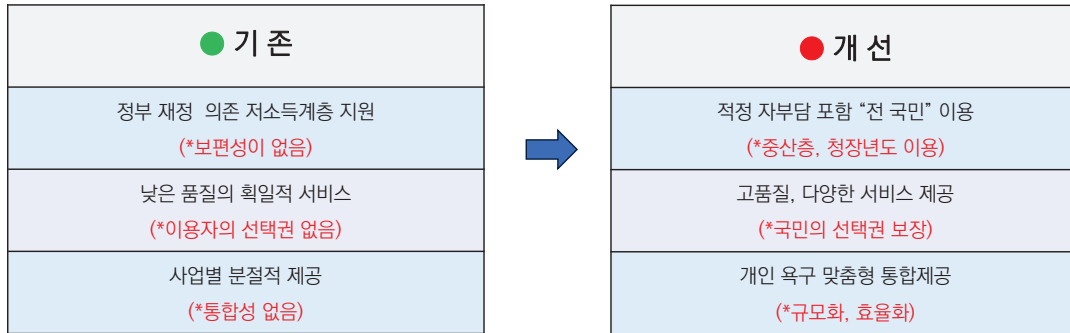
●사업내용	●추진 시 · 도	●비고
청년 자립지원	- 서울-생활지원 사회서비스 - 광주-건강 금융교육 통합적 제공 - 경기도와 경상남도-자립준비청소년 사회관계망 형성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 운영 컨소시엄 기관 사업비 지원 (80백만원, 시도사회서 비스원 10백만원)
영양, 건강검진, 병원동행	- 인천-고위험군 영양, 건강검진, 병원동행 - 대전- 경증 치매노인 영양, 건강검진, 병원동행, (AI) - 울산- 돌봄이 필요한 퇴원환자 영양, 건강검진, 병원동행(AI)	
맞춤형 통합서비스	- 충청남도-노인 이주민 맞춤형 통합 사회서비스 - 전라남도-도서지역 맞춤형 통합 사회서비스 - 강원도-고령의 농촌지역 치매환자 맞춤형 통합서비스	

※ 대표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이용자 매칭, 사업모니터링, 모델화, 예산집행, 사업결과 보고
협력기관: 이용자 발굴, 연계, 인문적자원 지원
구성기관: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관리·운영

12

사회서비스 개념, 추진 현황

• 정부의 사회서비스 추진 방향 •



13

사회서비스 개념, 추진현황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특성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용자 지원방식 : 바우처)의 특성

- (신청주의) 사회서비스 욕구를 이용자가 직접 입증(증빙서류 등)
- (한시적 지원) 서비스 이용기간의 제한성(평균 1~2년)
- (비용부담)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차등지원·납부
- (제공자) 시설·장비·인력 3가지 조건 충족 시 제공기관 등록
- (선택권)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기관 간 품질경쟁 유도
- (지원수단) 전자바우처 시스템



14

사회서비스 개념, 추진현황

• 부산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수요·공급 현황(2022년 말 기준) •

○ 서비스 영역별 수요·공급 현황('22.1~12.)

(이용자 수) 27,090명 / (기관 수) 1,479개소 / (인력 수) 2,642명

구분	상담			돌봄			재활			역량개발		
	이용자	기관수	인력수	이용자	기관수	인력수	이용자	기관수	인력수	이용자	기관수	인력수
빈도	11,700	866	1,798	1,554	105	168	9,507	201	345	4,329	307	331
%	43.2	58.6	68.1	5.7	7.1	6.4	35.1	13.6	13.1	16.0	20.8	12.5

15

사회서비스 개념, 추진현황

• 부산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수요·공급 현황(2022년 말 기준) •

(단위:원,%,명,개소)

구분	사업명	시행지역	예산집행액	%	생성대비이용률	이용자수	제공기관수	제공인력수
상담	심리치유	부산시	5,730,306,609	26.9	87.4	6,329	346	1188
	아동정서	부산시	2,232,585,900	10.5	91.6	2,729	249	352
	부모코칭	부산시	1,098,832,000	5.2	81.1	2,344	227	210
	1인가구	부산진구,연제구	304,000	0.0	14.3	1	8	1
	가족상호	서구,수영구,남구,연제구	272,316,580	1.3	85.7	297	36	47
돌봄	치매예방	부산시	991,826,591	4.7	69.6	1,164	95	130
	식사영양	부산진구	305,556,300	1.4	72.5	310	1	7
	일상생활	부산진구,북구	87,192,000	0.4	94.4	80	9	31

16

사회서비스 개념, 추진현황

• 부산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수요·공급 현황(2022년 말 기준) •

(단위: 원, %, 명, 개소)

구분	사업명	시행지역	예산집행액	%	생성대비이용률	이용자수	제공기관수	제공인력수
재활	아동건강	부산시	35,834,625	0.2	52.8	258	53	36
	행복중년	영도구	15,673,750	0.1	55.3	42	1	2
	노인건강	부산시	412,779,612	1.9	70.2	709	42	28
	시각안마	부산시	7,959,005,431	37.4	84.1	8,285	101	265
	장애렌탈	부산시	196,627,000	0.9	78.5	213	4	14
역량 개발	동화구연	부산시	708,207,220	3.3	76.6	2,404	197	203
	해양역사	부산시	1,070,787,234	5.0	80.3	1,593	108	116
	이바구	동구	135,357,625	0.6	81.4	268	1	7
	아동놀이	남구	42,440,000	0.2	71.1	64	1	5
돌봄	가사간병	부산시	3,038,718,457	9.2	85.2	886	29	422
	산모신생	부산시	8,437,173,518	25.6	-	7,766	56	1510
	청년마음	부산시	219,845,000	0.7	60.9	411	46	70
총계		-	32,991,369,452	100.0	-	36,153	1,610	4644

17

사회서비스 개념, 추진현황

• 부산광역시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

구분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만1세~2세	만3세~7세	만8세~18세	만19세~39세	만40세~64세	만65세 이상
상담	심리치유(만18세 이하), 아동정서(만4~13세), 부모자녀 상호작용(서구 외4, 만3~7세)			청년 마음	가족마음이음 (예비초중고 부모)	
재활					중년건강 (영도, 만40~64세)	노인건강 (만65세 이상)
	보조기기 렌탈(만24세 이하)					시각안마 (만60세 이상)

18

사회서비스 개념, 추진현황

• 부산광역시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

구분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만1세~2세	만3세~7세	만8세~18세	만19세~39세	만40세~64세	만65세 이상
돌봄	산모 (만1세)			정리수납지원(사하구)		치매예방(만65세~)
						식사영양간접·복구 만65세)
	가사·간병(만64세 미만, 1~3급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법정보호세대, 의료급여 장기입원 퇴원자)					일상생활지원 (진구·복구, 만65세~)
역량 개발	동화구연 (만2~7세)		해양역사 (만7~15세)			
			아동놀이 (남구, 만6~12세)			

19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추진 현황

1. 자활사업의 개념
2. 한국자활사업의 시기별 제도 변화와 평가
3. 자활사업 현황

20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추진 현황

• 자활사업의 개념 •

○ 개념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에게 탈수급 및 자립을 위하여 직접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정

- 자활사업은 취창업률, 탈수급률, 취창업유지율, 수익금, 매출액 등을 주요 지표로 그 성과를 평가함 (보건복지부, 2023)
- 자활사업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래 우리나라의 대표적 근로연계복지제도로서 '근로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지원 및 근로기회' 등을 제공하는 사업

21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추진 현황

• 한국 자활사업의 시기별 제도 변화와 평가 •

제도화기
(2000.10~2005)

- 이원화된 자활사업 자원체계와 통합적 지원을 위한 시도
- 지역자활센터의 전국적 확대와 상위 자원체계 구축 노력
- 자활사업 내용의 표준화에 따른 명암
- 사회통합프로그램과 노동통합 프로그램의 공존

제도적 확대기
(2006~2012)

- 전국적 자활자원체계의 법적 근거확보, 광역자활센터의 역할 모호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성과 평가와 실질적 성과관리의 실패
- 성과형 사업단 강조와 사회통합 프로그램 축소
- 자활공동체의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변모 노력

제도변화 모색기
(2013~2017)

- 사회적 경제 확산 속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자활사업 수행주체의 수동성과 이질성 표출
- 취업우선지원사업 시행과 자활사업 위축
- 노동통합 성과중심 프로그램 강조와 탈수급 지원의 다양화

제도 다각화기
(2018~2021)

- 상위자원체계 강화 시도 그러나 여전히 한 모호성
- 자활사업 기능 유형 다변화 시도의 종료와 사회적 경제조직 정체성 회복의 좌절
- 시대적 위기에 대응하는 자활근로 사업의 다양화와 현금급여 확대
- 시대적 변화 모색과 유사사업과의 정책적 재충전 우려

자료: 백학영, 박송이, 이상아외(2023). 자활사업 변화에 관한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2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추진 현황

• 자활사업 현황 •

○ 기관유형별 현황

순번	기관유형별	2023년	비고
1	농촌형	0	-
2	도농복합형	2	강서/기장
3	도시형	16	-
합 계		18	-

○ 기관규모별 현황

순번	기관규모별	2023년	비고
1	최소형	0	-
2	기본형	1	중구
3	표준형	14	-
4	확대형	3	금정구/동구/해운대구
합 계		18	-

23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추진 현황

• 자활사업 현황 •

○ 자활기업 현황

(1) 자활기업 종류별 현황

순번	자활기업종류별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증감
1	전국자활기업	0	0	0
2	광역자활기업	5	5	0
3	지역자활기업	59	56	-3
합 계		64	61	-3

(2) 자활기업 사업자구분별 현황

순번	자활기업 사업자구분별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증감
1	개인사업자	43	40	-3
2	법인사업자	15	15	0
3	협동조합	6	6	0
합 계		64	61	-3

24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추진 현황

• 자활사업 현황 •

(1) 자활기업 업종별 현황

순번	자활기업 업종별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증감
1	집수리	14	14	0
2	양곡배송	8	8	0
3	청소/세차	6	6	0
4	커피	11	12	1
5	외식/음식점/도시락/반찬	8	6	-2
6	편의점	6	5	-1
7	세탁	1	0	-1
8	식품생산	3	3	0
9	유통, 판매	2	2	0
10	사회서비스	2	2	0
11	재활용	1	1	0
12	간병/인력파견	0	0	0
13	기타	2	2	0
합 계		64	61	-3

25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추진 현황

• 자활사업 현황 •

○ 자활기업 업종별 현황(업종별 세부사업)

순번	자활기업 업종별	자활 기업명
1	집수리(14)	(주)부산광역시주택복지센터, 라이프앤드하우스, 나누리창호공사, (주)드림이엔지, 멧인테리어, (주)한빛건축디자인, H&S건설, 침인테리어, 이룸인테리어주거복지센터, 하우스스토리, (주)지음인테리어, 좋은공간인테리어, 더하랑, 드림건축
2	양곡배송(8)	희망드림(사하두송), 행복드림(사하두송), 희망나래(부산진), 희망나르미(동구), 행복나르미(남구), 희망나르미(해운대), 행복나르미(동래), 다온협동조합(북구)
3	청소/세차(6)	그린존, 블루환경, (주)제로브이, 크린나라, (주)크린케어, (주)더깨끗한환경
4	커피(12)	(주)망미미디어, 행복커피, 텐퍼센트커피 반여3동점, 커피봉자, 커피랑, 요거당, 더리터부곡점, 만결카페, 블루삭 명륜점(신규), 145커피 구포점, 투프렌즈, 플라워카페그린날
5	외식/음식점/도시락/반찬(6)	스토리앤쿡, 토담돼지국밥, (주)통배감자탕 반여선수촌점, 크라상점, THE찬, 국수나무
6	편의점(5)	CU양정하이웰점, CU신평LH점, GS25동아대병원점, GS25초량스타점, CU동삼점
7	세탁(0)	해당없음
8	식품생산(3)	빵긱베이커리, (주)명품바사삭누룽지, 참맛있는떡집
9	유통, 판매(2)	쭈마헬라, 자활물류유통협동조합
10	사회서비스(2)	(사)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한빛가정관리
11	재활용(1)	(주)좋은환경
12	간병/인력파견(0)	해당없음
13	기타(2)	애드피아, 단호박프레스

26

통합돌봄과 지역자활센터 참여 사례

1. 부산형 통합돌봄
2. 타시도 사례(서울SOS)
3. 타시도 사례(부천시)와 성과평가
4. 지역자활센터 참여 현황(22년 기준)
5. 부산형 통합돌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27

통합돌봄과 (지역)자활센터 참여 사례

• 부산형 통합돌봄 •

- 추진체계 : 16개 구·군 205개 읍면동, 민간·공공 서비스 제공기관
 - 16개 구군 전담 '과' 미설치, 전담 '팀' 2개구 (선도사업 지역)
- '22년 예산 : 선도사업 2개구(국 · 시비 25억9천만원), 14개 구 · 군 각 1억
- '23년 예산 : 22억원 (시비 11억, 구·군비 11억원)
 - 선도사업 2개구(부산진구, 북구) 각 4억, 14개 구·군 각 1억 ※ 보조비율 : 시비 50%, 구비 50%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 선정기준 : 소득·재산·연령·장애 무관, 돌봄이 필요한 정도
- 사업내용 : 필수, 자율, 기타(자체, 연계)사업 구분
- 기존 돌봄 우선 연계 우선적으로 기존 제도권 서비스부터 연계·제공

28

통합돌봄과 (지역)자활센터 참여 사례

• 부산형 통합돌봄 •

○ 부산형 통합돌봄 주요서비스

▷ 필수사업 ※ 통합돌봄 예산 중 50% 이상 의무적 사용

- 가사지원 :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활동, 외출동행 등 일상활동 지원 등
- 식사지원 : 일반식, 반찬 등 음식조리 및 배달
- 돌봄활동가 : 지역 내 인적자원 활용 안부확인, 가사활동 등 지원

▷ 활동비 시간당 12천원 이내, 1일 최대 4시간, 월 480천원 초과 금지

▷ 자율사업 : 케어안심주택, 주거환경개선, 병원이동 등 구·군 특색에 맞는 사업

▷ 기타사업 : 순수 구·군비 사업, 보건소·마을건강센터 등 타 기관 연계사업

▷ 비용지원 : 수급자 100% 지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5%, 일반대상 본인부담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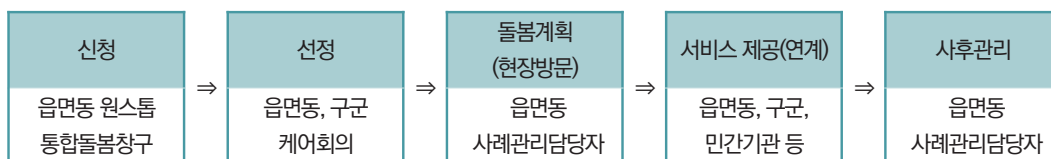
▷ 지원한도 : 최대 6개월간 서비스 제공, 돌봄활동가 최대 연 100시간, 가사지원 연 60시간 이내 지원, 1일 최대 4시간 지원 가능

29

통합돌봄과 (지역)자활센터 참여 사례

• 부산형 통합돌봄 •

○ 서비스 절차



※ 긴급돌봄지원

○ 운영기관 : 부산사회서비스원

○ 사업내용

- 코로나19 긴급돌봄 : 코로나19에 따른 돌봄공백발생 시 ▷ '23. 1월부터 시행
- 틈새돌봄 :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발생 시 등 ▷ '23. 7월부터 시행예정

30

통합돌봄과 (지역)자활센터 참여 사례

• 타시도 사례(서울SOS) •

	중앙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선정: 19년 6월)	서울시 돌봄SOS센터 (시범사업 출범: 19년 7월)
대상	노화, 사고, 질환,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이나,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자	긴급하고 일시적인 단기간 욕구 중심 돌봄제도 사각지대(공백)에 대한 개입 *적격기준: 기능제한, 수발자부재, 제도외
조직	· 총괄추진단, 민관협의체, 통합돌봄창구 · 다양한 영역 조직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 *읍면동, 보건소, 복지관, 병원(지역연계실) *총괄조직: 선도사업총괄팀+융합서비스팀	· 동주민센터 복지2팀 내 돌봄SOS센터 · 자치구 단위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 자치구/동-돌봄매니저 각2명(복지/간호)
운영	발굴→초기상담→접수 및 욕구조사→ 사례회의(지역케어회의) →서비스 제공 및 점검→사후관리(3개월 내 1회 이상) *다직종연계 통합플랫폼구축(행복e음)	(발굴)→신청접수→현장방문→ 돌봄계회 → 서비스 제공(업무협약 제공기관 구매) →모니터링→종결보고→(만족도조사) *서울시 생활복지통합전산망
내용	기존 지역자원 확보+자체 프로그램 구성 · 주거(케어안심주택, 자립체험주택...) · 보건의료(방문건강관리, 방문의료...) · 재가돌봄(재가장기요양,서비스,IoT...)	8대 돌봄서비스: 5개 수가체계 적용 (일시자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안부확인, 건강지원, 정보상담) *창기적 욕구: 돌봄제도 안내 및 연계

자료: 정은하(2020). 초고령사회 진입과 대응방안 포럼. 부산복지개발원.

31

통합돌봄과 (지역)자활센터 참여 사례

• 타시도 사례(서울SOS) •

추진 배경 | 돌봄서비스요구의 변화와 제도적 재편의 요구

환경적 변화 측면

- 인구 고령화 및 가족 구조의 변화(1~2인 가구 증가 등)로 인한 **돌봄 욕구의 증가**
-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돌봄 욕구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 **‘돌봄의 사회화’**

제도적 한계 측면

- 영구적 기능 저하에 초점을 맞춘 장기적 서비스 중심의 기존 돌봄 제도의 한계
- 기존 돌봄서비스의 저소득층 중심 이용자 선정 기준으로 인한 욕구 소외 문제



자원 및 전달체계 문제 측면

- 자원 부족 또는 적절한 연계체계 부족으로 돌봄 서비스 이용과 연계의 어려움
- 각 제도를 제공 주체 및 전달체계의 분절적인 운영으로 통합적 대응의 어려움

운영 체계 | 서비스 제공기관 중심



사업 대상 |

- ▶ **돌봄SOS센터 8대 돌봄서비스 중 영장보호서비스는 서울시에만 누구나 이용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돌봄 욕구를 가진 서울시민은 모두 이용 대상임)**
- ▶ **영장보호서비스의 7대 서비스는 50세 이상 중장년, 이혼신, 장애인(특히 여성)에 해당되고**
* 7대 돌봄서비스: 일시자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안부확인, 건강지원
* 서비스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용자 욕구에 따라, 돌봄매니저 판단에 의해 제공 가능
- ▶ **아래의 2가지 적격 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함**
I. 서비스 신청 현재 당사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II. 서비스 신청 현재 당사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III.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불거어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 **서비스 이용 금액은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 가능하며, 그 외에는 이용자 전체 부담 이용 가능함**
! 수급자 및 차상위 및 중위소득 85% (한시적 100%) 이하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본인 부담 !
- ▶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는 소득기준이 아닌 이용자 돌봄 욕구의 시급성 및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

자료: 정은하(2020). 초고령사회 진입과 대응방안 포럼. 부산복지개발원.

32

통합돌봄과 (지역)자활센터 참여 사례

• 타시도 사례(부천시)의 성과평가 •

- 부천시지역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위해 부천시통합돌봄팀과 지역자활센터가 논의하여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정리함
- 부천시가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되고(19년 4월) 이후 월단위로 부천시통합돌봄팀과 지역자활센터가 구체적인 수행계획 수립을 위해 회의구조를 마련하였으며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사업개요

- ▶ 운영기간 : 2019. 8 ~ 현재
- ▶ 운영주체 : 3개 지역자활센터(소사 원미 나눔)
- ▶ 주요내용 :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영양, 일상생활, 세탁, 이동지원)
- ※ 2019. 9. 17. 영양, 일상생활, 세탁서비스 개시
- ▶ 운영방법 : 10개 동(洞)을 3개 자활센터로 배정하여 서비스 신청 및 지원

구 분	나눔지역자활센터	소사지역자활센터	원미지역자활센터
동(洞)	심곡동 부천동 영곡동	대산동 소사본동 별안동	중동 신곡동 상동 오정동

- ▶ 사업예산 : 국비 · 도비 · 시비 (50 : 25 : 25)

▶ 업무처리 절차



○ 타시도 우수사례로 본 통합돌봄 사업으로 인한 성과

- 서울 SOS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으로 국한되었던 돌봄이 보편적 사회서비스 돌봄으로 변화
- 서울 SOS의 경우 일시재가는 재가시설, 사회서비스원, 주거편의 및 식사지원은 사회적 경제조직과 자활센터 중심으로 시행 (지역자활센터 등 여러 기관의 지속적 참여를 위한 기회부여 방안 모색)
- 광주 서구 본청의 통합돌봄담당 국(局)체계를 구축, 선도사업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시행
- 경기 부천시 10개의 권역동을 지역자활센터 중심으로 협업체계를 구축 성공적인 모델로 인정 받고 있음

자료 : 김보영(2021). 복지동향, 정은하(2020). 복지개발원 포럼, 박해준(2022).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포럼

33

통합돌봄과 (지역)자활센터 참여 사례

• 지역자활센터 연계 현황(22년 기준) •

구·군	참여 내용	참여형태
중구	- 구로 부터 특별히 의뢰 받은 사업 없었고, 필요시 사업에 가끔씩 참여	
서구	- 통합돌봄으로 해서 특별히 참여한 사업 없음	
동구	- 빨래방, 저장강박 세대 청소에 참여, 영양식을 의뢰 받았으나 사업방식 (출장위패 방식으로 현재 수행 중)의 차이로 참여하지 않음	주 참여 복지관과 MOU 형식으로 참여, 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없는 사업 선택하여 수행
영도구	- 구로 부터 의뢰받은 적 없음	
부산진구	- 병원동행, 영양식 배달 사업, AI 다솜이로 대상자 관리, 홈클리닝, 세탁, 소독, 방역 등 시행	1년 사업비 계약방식(1억2천만원)
동래구	- 등급외자 지원, 사각지대(지역내 아동이나 노인단기 돌봄서비스 지원, 지역 돌봄지킴이, 수리수리 사업단 (형광 등 수전 수리)	공익형으로 수행

34

통합돌봄과 (지역)자활센터 참여 사례

• 지역자활센터 연계 현황(22년 기준) •

구·군	참여 내용	참여형태
남구	- 통합돌봄이라고 해서 특별히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구청에서 때때로 사업 등을 의뢰, 집수리나 청소 등은 시행했는데 생각해보니 그 사업 같음	사업건수 별로 구로 부터 수령함
북구	- 재가돌봄사업단 구성 참여, 사회적경제조직 집수리사업 참여	재가가사돌봄으로 시간당 1만원, 1인당 90시간 까지 가능 집수리 사업비로 5천 400만원 수령함
북구 희망터	- 영양식, 청소 사업 등에 참여하였으나 중간에 그만둠	최초 구에서 의뢰, 계약방식으로 참여했으나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으로 중단
해운대	- 장기요양사업 요양보호사(160명), 가사간병, 장애활동보조(60~70명) 등 바우처 사업 지속 수행 - 부산형 통합돌봄 온사업으로 긴급단기 파견 60명 지원, 병원동행, 침대 소독, 빨래방(구에서 버스 구입)전열기구 수리	구로 부터 3천만원 수령함
사하구	- 저장강박 가정 청소, 방역, 소독 시행	구로 부터 6천만원 정도 수령함

35

통합돌봄과 (지역)자활센터 참여 사례

• 지역자활센터 연계 현황(22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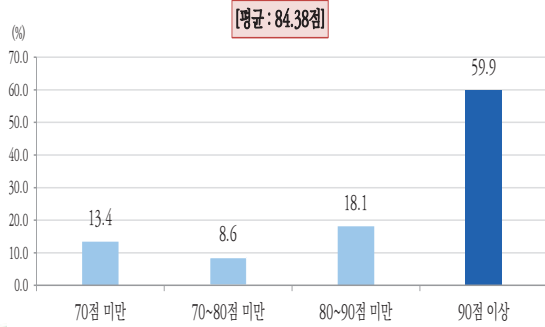
구·군	참여 내용	참여형태
사하구 두송	- 무료간병 사업(공공), 도시락 주2회 15세대, 세탁사업 밀키트 사업	사업은 공모사업과 주민주도(후원)사업시행 (도시락 500만원), 세탁 5개월 650만원, 밀키트 30세대(초기 요리방법 교육) 600만원, 도시락 개발 1만원
금정구	- 자활사업단에서 도시락 배달 사업 70~80명 정도 배달 반찬 서비스. 빨래, 청소 등	자활센터에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자활사업단 에 지급하면 내부거래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하여 사업비를 복지관에서 받아서 자활에 지급
강서구	- 통합돌봄 사업 자체가 잘 수행되지 않았음	
연제구	- 참여하지 않음(홍보에 주력하다 호두과자 매출 1,200만원 상승)	
수영구	- 반찬서비스, 저장강박 가정 청소 등 수행	사업 중단
사상구	- 통합돌봄사업에 참여하지 않음	
기장군	- 대상 주2회 반찬서비스 실시(60명), 빨래, 가사서비스,	반찬서비스 배달료 포함 단가-9천원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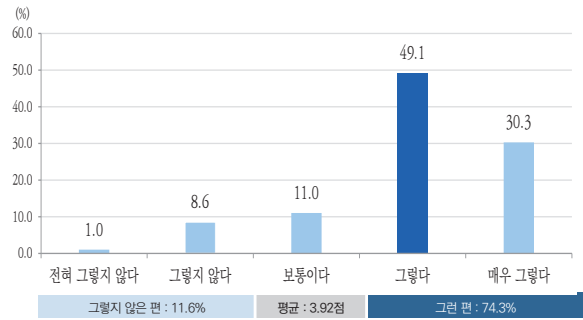
통합돌봄과 (지역)자활센터 참여 사례

• 부산형 통합돌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 통합돌봄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응답자 수 700명]



○ 통합돌봄서비스 이용 시 집에서 생활 유지 가능성 [응답자 수 700명, 5점 척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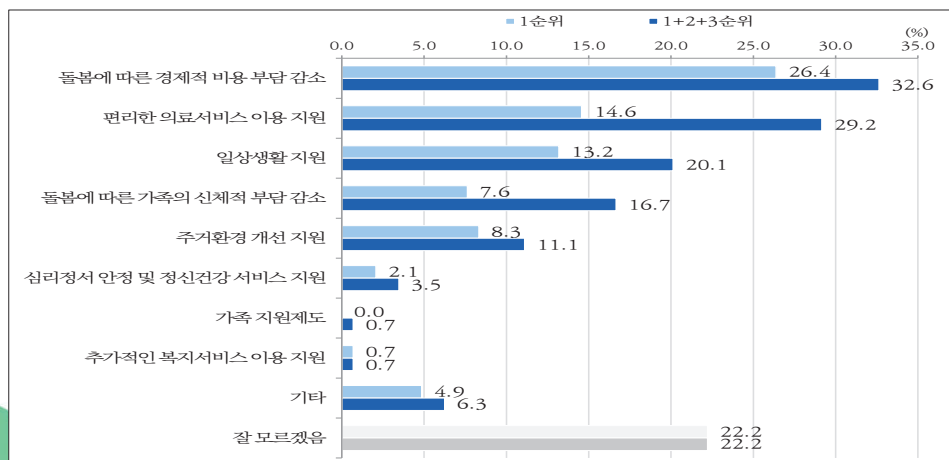
자료 : 이재정의 (2022). 부산형 통합돌봄 관리사업. 부산복지개발원.

37

통합돌봄과 (지역)자활센터 참여 사례

• 부산형 통합돌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 통합돌봄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자료 : 이재정의 (2022). 부산형 통합돌봄 관리사업. 부산복지개발원

38

통합돌봄과 (지역)자활센터 참여 사례

• 부산형 통합돌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평가(질적연구)

1. 일반세대 - 가능한 집에 계속 살고 싶고, 지원에 감사

“저는 그냥 입소하지 않고 그냥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입소까지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입소하는 건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세대1)

“근데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막 화장실 못 갈 정도가 되면 가야 되지 만 화장실 가고 내 손으로 내 발로 할 수 있으면 뭐 그때까지는 집에 있을 겁니다.” (일반세대2)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사하고 이제 선생님이 오셔서 집에서라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다 그렇지?” (일반세대2)

39

통합돌봄과 (지역)자활센터 참여 사례

• 부산형 통합돌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평가(질적연구)

2. 기초연금수급세대 - 서비스 대상이 된 것에 만족

“첫째는 말도 못할 만큼 감사한 마음 그거는 내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또 생활에 너무 보탬이 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무 일 없이 살아도 이것저것 불편한 게 많습니다. 불편한 거는 괜찮은데 먹는 거를 내가 못 먹으니까 자꾸 먹는 거는 없고 이번에 이렇게 하니 이제 이제 나한테는 진짜 하늘에서 복 떨어진 거거든요. (기초연금1)”

“ (어머니 반찬의 질은 어떤가요?) 돈 있는 사람들 사는 똑같은 반찬 수준입니다. (기초연금1)”

3. 저소득세대 -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어도 요구 못함

“도배 같은 거 장판 같은 거는 교체 안 되는 건가요?(그거는 한 번 알아보신 적 없으세요? 도배, 장판?) 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디 물어보지도 못해요. (저소득1)”

“당뇨를 앓고 있어 등급이 나오면 입소 희망합니다”(저소득2)

40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대응방안

1. 사회서비스 통합적 지원의 강점과 과제
2. 돌봄 사회서비스사업과 자활사업 참여 모형 제안
3. (지역)자활센터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제언

41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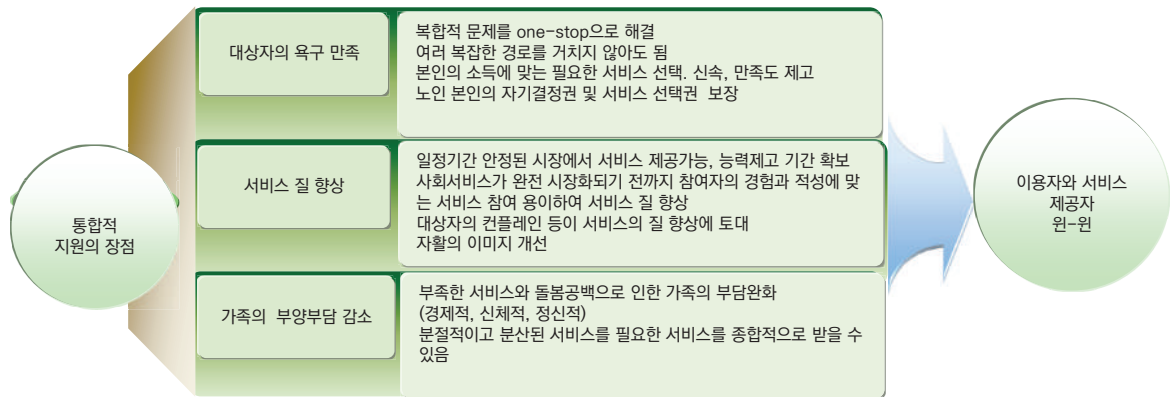
• 사회서비스 통합적 지원의 강점과 과제 •

내·외부적요인		강점	과제
내부적	운영 측면	지역내 센터장이 오랫동안 자활센터를 담당한 운영인력으로서의 장점 보유	평가와 제도, 정책, 지침등의 끊임없는 변화에 상당히 번아웃된 상태로 꼭 해야하는 사업이외 사업 확장에 부정적
		집수리, 돌봄, 식사, 소독, 방역, 정리수납외 장기요양등 바우처 사업 다양한 활동 경험	(지역)자활센터 내부에서만 사업을 알고 외부 홍보 부족 동시에 수익창출이 목적에 급급 통합돌봄 참여 관심 부족
		국가 보조금을 받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유일하게 시장 경제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 보유	중앙의 지침 등에 따라 사업 수행, 연속성과 지속성에 대한 믿음 부족, 사업 확장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음
	참여자	23년 동안 지속적 변화에 적응, 어떠한 사업이라도 실적을 낼 수 있는 능력	평가의 문제로 지역내 자활의 자율성 제한, 참여자의 탈수급, 자활기업, 자산형성 등 평가와 관련 없는 것에 적극적인 참여 기피
외부적	선입견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 지역내 저소득계층의 욕구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접근성 높음	개인별 능력의 편차가 크고, 자활사업에 참여시 힘든 일은 참여자의 참여 기피로 인해 센터에서도 사업 확장을 꺼려함
		참여자들의 인건비가 낮아 가격 경쟁력 보유	지자체 마저도 '자활사업'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능력에 대한 선입견으로 낮은 가격, 공공봉사를 당연한 것으로 판단

42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대응방안

• 사회서비스 통합적 지원의 강점과 과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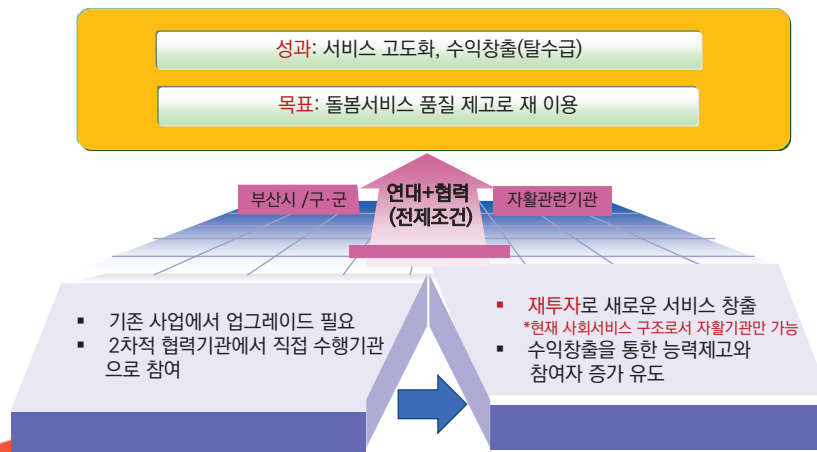


43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대응방안

• 사회서비스 통합적 지원의 강점과 과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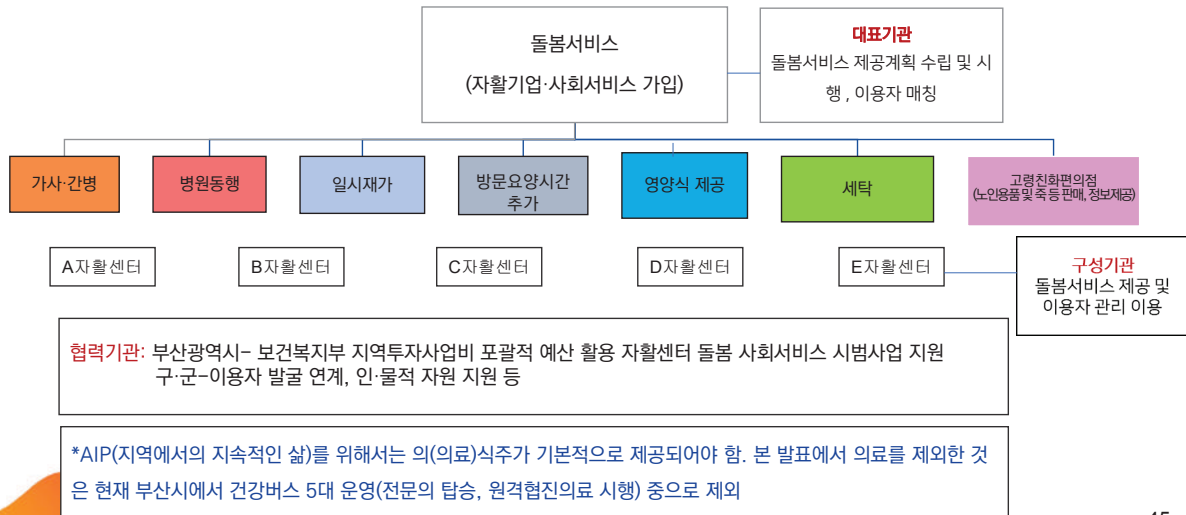
- 부산형 통합돌봄사업 변화(유료화-일반 15% 본인 부담금)는 자활센터의 역할을 더욱 증대시켜야 성공할 수 있음



44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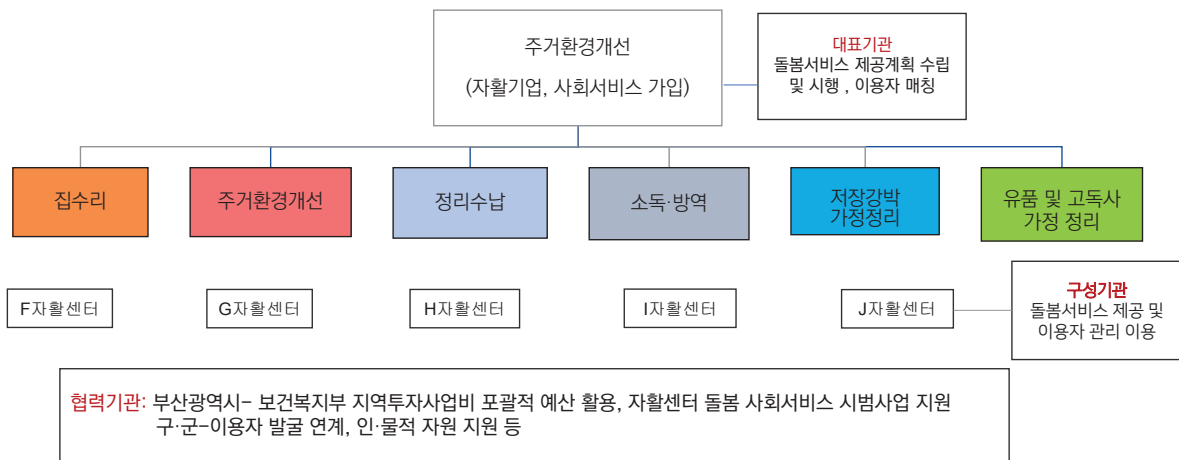
• 돌봄 사회서비스 사업과 자활사업의 참여 모형 제안 •



45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대응방안

• 통합돌봄 사회서비스사업과 자활사업의 참여 모형 제안 •



46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대응방안

○ 자활센터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제언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 통합돌봄 및 4대 바우처 사업 참여 사업참여 경험과 인적·물적 자원의 적극적 활용

- 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은 직접서비스를 제공한 경험 및 잠재력을 활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적극적인 참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속 수행 기관 존재 (서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행, 장애인활동보조 지속, 동시에 부산형 통합돌봄-세탁, 가사간병(해운대) 등 참여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존재
 - 주거의 경우 나주거환경개선사업,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부산시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크린케어 등, (주)광역주거복지센터에서 one-stop 통합사업으로 수행하였고, 수행능력 인정 받음
 - : 부산광역시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1개소 500만원 미만의 100개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오랫동안 수행,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수행 (부산진구)
 - 식사의 경우 사회적 기업 등이 많이 참여하였으나 배달 등에서 문제발생, 자활사업단에서 수행하거나 음식 자체를 자활사업단에서 만들어 대상자 가정에 직접 배달 (7장군)
 - 자장강박 가정, 무연고사 가정 청소·소독, 청소, 방역 등 민간기업에서 기피하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사업단에서 수행 (남구, 사하구, 부산진구)

4 □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대응방안

○ 자활센터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제언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 통합돌봄 및 4대 바우처 사업 참여 사업참여 경험과 인적·물적 자원의 적극적 활용

- 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은 직접서비스를 제공한 경험 및 잠재력을 활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적극적인 참여
 - 부산형 통합돌봄의 경우 구·군과 계약을 하고 자활사업단이 참여한 곳은 2-3곳에 불과, 통합돌봄 사례를 통해 본 결과 자활사업의 장점은 돌봄서비스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과 만·관 협력의 경우 성공적인 모델 구축 가능성 확인
 - 통합돌봄 사업 수행시 구·군과 직접 계약체결, 사업단의 능력에 대한 지자체와 이용자 및 잠재적 소비자 인식 제고
 - 지역보장협의체 등 지역적 편차가 크지만 구·군 돌봄 협의체, 사례 회의 등에 자활센터 참여, 보유 자원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사업 수행
 - 기존 바우처 사업을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잠재력 발휘
 - 통합돌봄에 필요한 모든 사업을 잘 수행하지 않더라도 각 센터에서 가진 강점을 활용, 사업에 참여와 동시에 다른 사업 등에 참여할 참여자를 계속 발굴
 - 사업수행시 수익창출 구조를 만들어가는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업 재조정 필요
 - 현재 자활센터의 인력 구 및 인프라 구조나 한 기관에서 돌봄서비스 패키지를 모두 제공에 한계, 앞서 제안한 시범사업 참여 혹은 타 자활기관과 연계시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축과 수직적 통합전략 유리(자료: 이상윤(2021). 자활정책 브리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4 □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대응방안

○ 자활센터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제언

[부산시/ 구·군 지자체] 자활센터·자활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유도 및 지원강화

- 부산광역시. 구군 지자체는 지역자활센터가 이전 4대 바우처 사업 수행,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 참여 등의 능력 인정, 이들이 가진 강점 등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에 지역자활센터가 참여하고 있으나, 타 시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및 홍보(서울 SOS사업, 부천시 경우 자활센터 등과 함께 성공적 사업 수행하고 있으나 부산시는 이에 대한 인식 부족하여 활용 부족)
 - 부산형 통합 돌봄도 올해부터 저소득층 무료, 일반 15% 부담률을 부과, 수익창출과 이를 다시 사업에 투입하여 인력양성, 서비스 질을 개선 지속적 수익창출과 재투자를 위해 어떤 기관을 거점 기관으로 선정할 것인가 고민 필요 (지역자활센터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10개 시도에서 사회서비스 연계 협력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 중임. 부산광역시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부산형 통합돌봄과 자활센터가 가진 장점을 활용, 수요자에게 one-stop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컨소시엄 형태 권역별(3개 권역)로 시범사업 제안함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시범사업 실시)
 - 또한 공공자원과 연계한 신규사업 필요, 즉 경로당 청소, 취사도우미 지원 등 사업도 실시 필요(자료: 김유석 등(2019) 제사회투자지원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4 □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대응방안

○ 자활센터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제언

[부산시/ 구·군 지자체] 사회서비스제도 변화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자활센터 강점 활용
 - 중앙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은 구·군 단위로 진행되는 반면, 부산형 통합돌봄은 읍면동 단위로 진행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진입이 유리, 통합돌봄 실시시 관련 업종인 주거복지·요양 돌봄 서비스 업종 간 컨소시엄 구성 통합서비스 제공 가능(자료: 김유석 등(2019) 제사회투자지원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현재 중앙서비스원에 품질인증 제도 마련, 이에 맞도록 사업 초기부터 사업장과 참여자들을 관리하여 기존 시장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선제적 대응 필요
 - 자활사업의 역점은 서비스 제공 인력과 노동력의 전문성 부족과 이를 충족하는데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이 있으나 반면 자활근로사업단을 활용, 시급한 지역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 활용(자료: 민동세(2022)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지역자활센터의 '돌봄사업'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 보장 등으로 사회서비스 확대에 능동적으로 참여방안 마련

□ □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대응방안

○ 자활센터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제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기자재 등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 행정적, 재정적 지원 확대로 공공영역의 안정적 지속적 일자리 및 매출 확보

-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변화 및 정책의 변화 등을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파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기움 펀드' 등을 통한 관련 기자재 및 공간 조성, 참여 인력 교육 등 지원 필요
- 노인 돌봄 사업은 저소득 계층 돌봄에만 집중, '사회적 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해소 필요하나 생산기능 인구 감소 등은 돌봄 인력 감소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 있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듯이 점차 근로능력이 있는 참여자의 비중이 감소, 자활센터·자활기업이 사회서비스 기관으로 전환,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완전 시장화에 따른 민간기관과의 경쟁에서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행정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대응방안

○ 자활센터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제언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의 자활사업 내용의 연속성과 지속성 담보

■ 자활사업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결정, 표준화된 사업 이외 사업 자율성 보장

- 지역자활센터운영에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은 사업에 대한 평가 (자활참여자 자활자립 성공률,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단 매출 향상, 참여자 증가율)와 표준화된 사업 이외 사업 수행 한계에 있음
- 자활사업 인재를 보면, 매년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자세하게 되어 있으나 그에 따른 자활센터의 업무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인력부족 (인건비 조차 낮아 인력 유입 어려움)으로 참여자와 사업의 미스매칭 등 새로운 사업을 시도 한계
- 사업 초기 소비자들에게 자활이라는 선입견 해소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업 선도할 수 있는 기회제공
- 자활센터 FGI 결과 복권기금으로 시작한 4대 바우처 사업의 일방적인 중단, 그 결과 정부의 사회서비스 민영화, 시장화 등의 기조에 따라 초기 대상자 확보 등 사업 기반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있는 상태임
- 국토부(주거), 보건복지부(돌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내 다양한 부서 등과 협력, 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지자체와 현장에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 필요

□□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대응방안

○ 자활센터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제언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의 자활사업 내용의 연속성과 지속성 담보

■ 자활사업이 민간시장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정도의 능력 보유할 때까지 완전 민간시장화 지연

- 현재 지역투자서비스 지원단에서는 '돌봄 영역'에 한해서 사회적 경제 등으로 제한, 상담 등 전문 영역의 경우 가격의 탄력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자활센터와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과 보건복지부 내 전담부서 신설 필요
- 사회서비스의 완전 민간시장화의 정부 방침은 2007년 사회서비스 신설과 급격한 증가와 동일한 양상으로 가고 있음. 즉 급격한 사업의 확대나 규제완화로 인해 사회서비스는 영세한 경우가 많고 저임금-저숙련의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이어지고, 사회서비스 품질저하와 정부의 관리 압력 증가로 나타남(양난주, 2017: 한국자활개발연구원 2022 브리프 재인용)
- 2007년과 같은 상황은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공공영역에서 제대로 사업을 기획, 서비스 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공영역이라 할 수 있는 자활센터와 자활기업에서부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원 필요
- 자활사업의 성과를 달성 위한 평가와 지속적인 새로운 과업 수행에 대한 자침은 필요하나 일정부분 지역의 특성이나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원과 지역자활센터의 자율성 보장 필요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토론문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광주지역 자활사업 사례

김금현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광주지부 지부장

지역자활센터는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광주지부장 김금현

여기서 잠깐!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단순히 돌봄서비스 몇 가지를 신설하는 사업이 아니라
돌봄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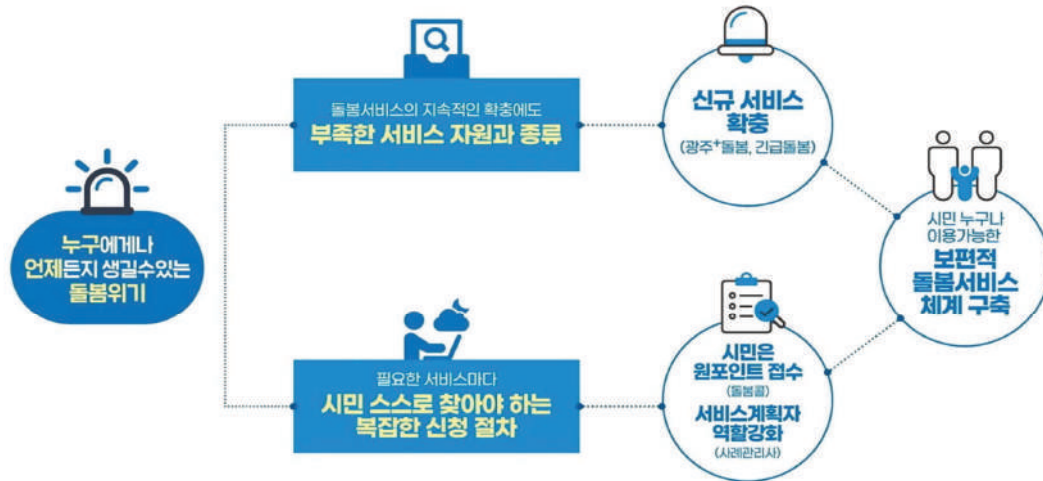
시민들이 돌봄 위기에 놓였을 때 도움을 청할 곳을 마련하고

- ▲행정이 나서서 돌봄 '계획'을 수립하여,
- ▲계획에 따라 민간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일련의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입니다!

문제점 및 대안

광주광역시
기획도시 광주



예산 확보

광주광역시
기획도시 광주



필요성

기존 제도에는 없는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예산 투입

*소득분위에 따라 본인부담액 일부 부과

예산액

연 사업비 **102억원** 자치구당 평균 20억원

[예산 사용처]

(광주*돌봄) 92억원 (시비 69, 구비 23) 시비 : 구비 = 75% : 25%

(긴급돌봄) 6억원 (전액 시비)

(기반구축) 4억원 (전액 시비)

* 전산시스템 도입 / 사례관리 담당자 교육 /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등

기본 원칙

공적 책임성	서비스 신청·접수·배분을 공적으로 책임성 있게 관리
적절성(충분성)	서비스 질과 양을 적절하게 마련, 기존 제도와 중복 지양
포괄성(다양성)	여러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준비
평등성(보편성)	소득·성별·연령·지역·지위 등에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공정하게
전문성	사례관리 담당자에게 전문성과 자율성 부여, 스스로 책임있게
통합성	관련자 및 기관 간 조정으로 통합적 제공
접근성	시간적·공간적·절차적 조건에 제약 없이

광주다움

공동체성	광주만의 공동체 문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회복탄력성	사회적 고립 해소, 사회적 관계망 복원
공공성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닌 공적 책임, 돌봄의 사회화
적극성	소외됨이 없게 사각지대 발굴
신속성	긴급한 요구 상황에는 신속하게 긴급돌봄 지원
자율성	5개 구별 특색을 가지고, 따로 또 같이
주민력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궤를 같이, 주민의 힘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 특징점

광주
기원도시

중복과 소외, 누수와 사각지대
➔ **컨트롤타워 '洞 사례관리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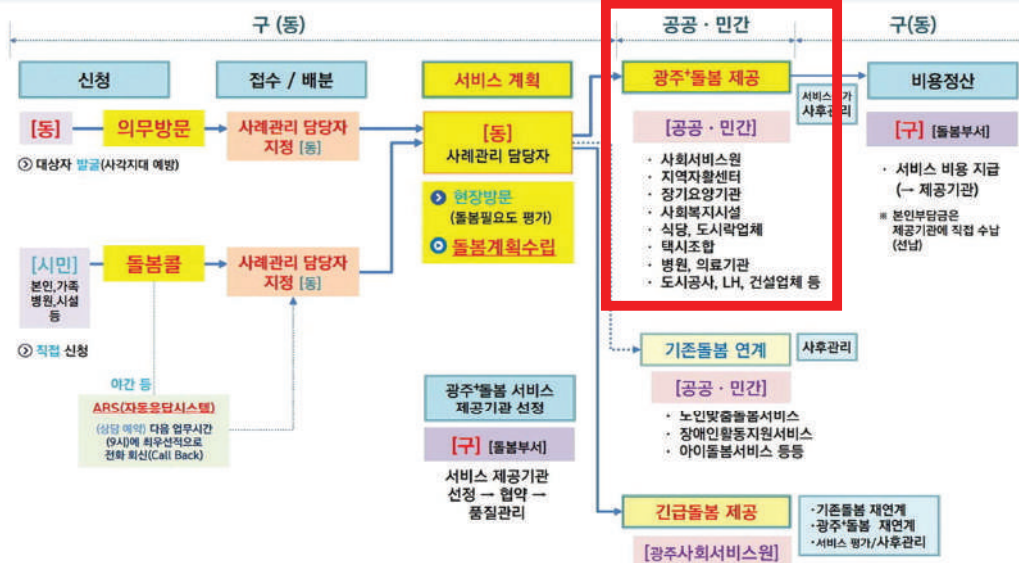
노인·장애인 특정 대상
➔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필요한 서비스마다 시민이 일일이 신청
➔ **단일 신청창구 <돌봄콜> 신설**

신청주의
➔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방문>**

기존 돌봄의 틈새 (대기시간, 없는 서비스, 비지원대상) ➔ **7대 돌봄 + 긴급돌봄 신설**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달체계



광주다움 통합돌봄 업무시스템 → 신청 접수부터 비용정산, 사후관리까지 전산 관리 (행정·제공기관 정보 공유)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민의 삶,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행 2개월 (4. 1. ~ 5. 30.)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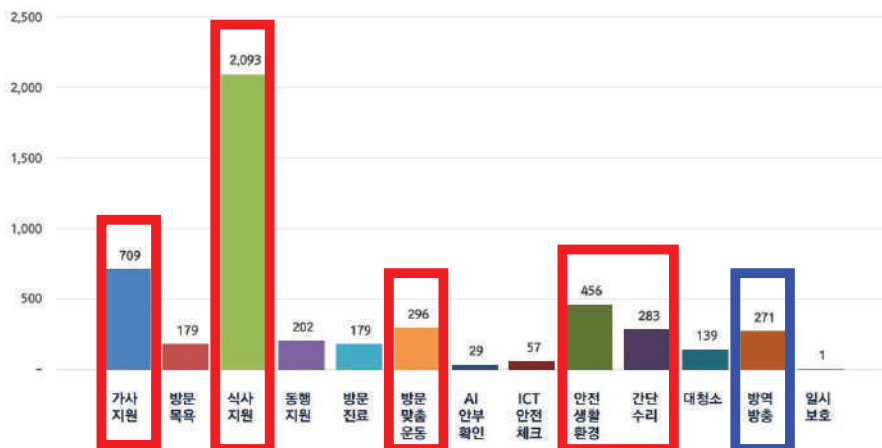
서비스 접수 / 현장방문 / 돌봄계획 수립

구	접수 현황			현장방문 건수 (의무방문 포함)	돌봄계획 수립 건수
	계	돌봄콜	전화 방문		
합 계	3,498	1,460	2,038	7,446 (신청 3,498 / 의무 3,948)	4,323

서비스 의뢰

광주*돌봄 4,894건															
합계	기초 돌봄 연계	소계 ①-1 가사 지원 (가사 지원)	①-2 가사 지원 (방문 목욕)	② 식사 지원	③ 동행 지원	④-1 건강 지원 (방문 진료)	④-2 건강 지원 (방문 맞춤 운동)	⑤ 안전 지원 (AI 안부 확인)	⑥ 안전 지원 (ICT 안전 체크)	⑤ 안전 지원 (안전 생활 환경)	⑥ 주거 편의 (간단 수리)	⑥ 주거 편의 (대 청소)	⑥ 주거 편의 (방역 방송)	⑦ 일시 보호	긴급 돌봄
6,075	1,115	709	179	2,093	202	179	296	29	57	456	283	139	271	1	66

광주*돌봄 서비스별 의뢰 현황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민의 삶,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행 2개월 (2023. 4.~5.) 이용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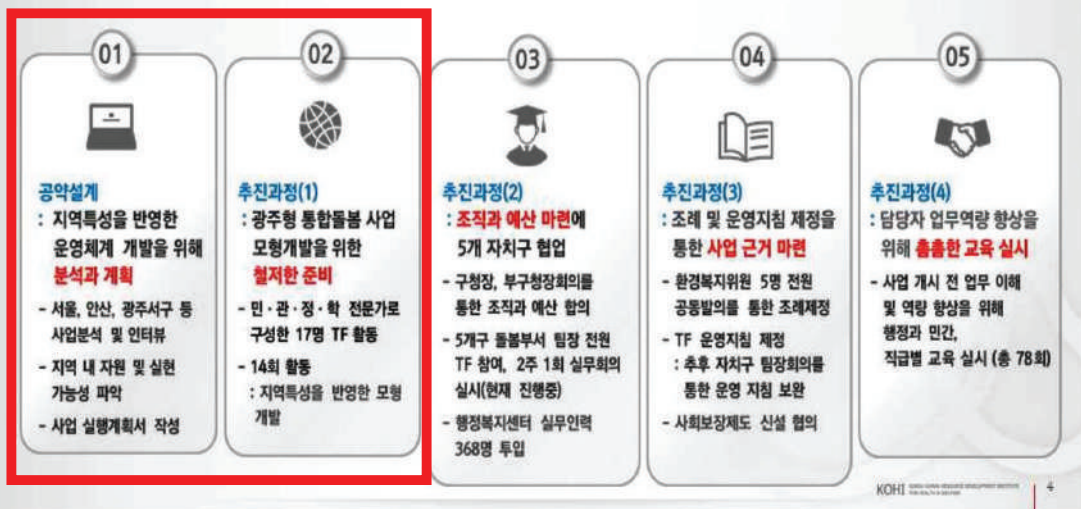
(단위 : 명)

성 별			가 구 특 성			가 구 원 수			경 제 수 준		
남	1,626	37.6%	노인	3,242	75.0%	1인가구	3,153	72.9%	수급자	2,389	55.3%
여	2,697	62.4%	1인장년	578	13.4%	2인가구	939	21.8%	차상위	176	4.1%
			장애인*	421	9.7%	3인이상	231	5.3%	85%이하	1,648	38.1%
			아동	42	1.0%	3인	144	3.3%	85~100%	30	0.7%
			1인청년	40	0.9%	4인	53	1.2%	100%초과	80	1.9%
						5인	21	0.5%			
						6인	4	0.1%			
						7인	10	0.2%			

* 전체 장애인 1,364명(31.6%) 노인·1인장년·아동·1인청년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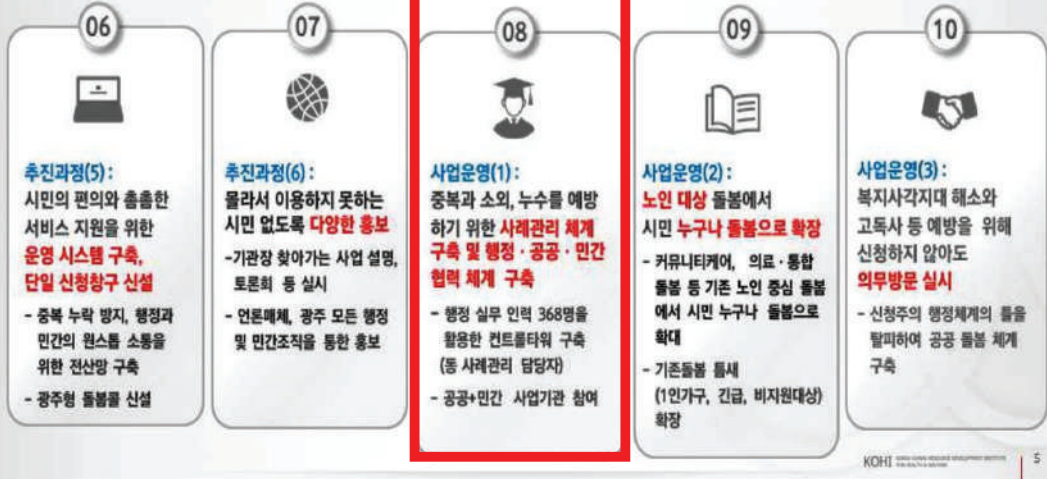
2. 추진성과

“광주다움 민주주의(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와 협업으로 광주형 통합돌봄 모형 개발”



2. 추진성과

“광주다움 민주주의(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철저한준비와 협업으로 광주형 통합돌봄 모형 개발”



참고	협약 예정기관			
연번	구분	기관(단체)명	대표자	비고
1	복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회회	안병규	
2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김천수	
3		광주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강용선	
4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광주지부	황옥화	
5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광주지부	김금현	
6	보건의료	광주광역시 의사회	박유환	
7		광주광역시 한의사회	김광경	
8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광주전남지회	윤영아	
9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광주광역시회	장일용	
10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최옥용	
1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광주교육센터	문창인	
12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조호권	
13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정민곤	

참고 1		협약 기관		
연번	구분	기관(단체)명	대표자	비고
1	복지	동신지역자활센터	박철진	
2		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김금현	
3		회망지역자활센터	임혜련	
4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광주지부 북구 지회	윤안식	
5		요셉행복일터	안효선	
6	보건의료	광주광역시 북구 한의사회	김상훈	
7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광주광역시회	장일용	
8	공공기관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북구종합재가센터	심연순	
9	봉사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이찬호	

□ 사업 방식

1. 공통 돌봄사업

- 광주광역시 5개구 공통사업(광주돌봄) 7개 서비스 분야

2. 지역 특화사업

- 각 구청별 특화사업

광주다움 통합돌봄 광주+돌봄 서비스

이웃과 함께
기원도시 광주

- ②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기존 공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기존 돌봄제도로 연계
- ③ 일시적 / 단편적인 도움으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경우이면서 기존망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는 추가 개발
- ④ 긴급 위기상황이나 기존, 추가서비스를 즉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1. [광주돌봄] 기본(공통) 사업

구분	사업	지원서비스	서비스 내용
광주 돌봄 (공통)	① 가사지원	가사활동	취사, 청소, 식사, 세면 등 지원
		차량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목욕 지원
		재가방문목욕	가정 내 욕조 이용 목욕 지원
	② 식사지원	영양음식 조리 배달	영양음식 조리 배달
	③ 동행지원	병원 동행	병원이동, 진료 지원
		외출 동행	관공서 이동, 업무지원
	④ 건강지원	방문진료	방문 진찰 및 상담 등
		방문맞춤운동	방문 물리치료, 통증 완화 등
	⑤ 안전지원	AI 안부전화	AI 보이스봇 통화로 안부 및 건강상태 확인
		ICT 활용 안전체크	AI 스피커, IOT 돌봄센서 등으로 안전 확인
		안전 생활 환경	경사로, 안전손잡이, 가스 타이머 등 설치
	⑥ 주거편의	간단수리	콘센터, 조명, 수전류 교체 등
		대청소	클린 지원 및 권선텩(수납정리)
		방역 / 방충	감염 예방 소독 및 해충 방제
	⑦ 일시보호	시설 단기입소	대상자별 시설 입소
		케어안심주택	긴급주거지원 신청 대기자 등
	기타	사업운영	사업홍보 및 교육
소계		7개 사업 16개 서비스	

17

1. [광주돌봄] 지역특화(광주광역시 복구) 사업 - 예시

구분	사업	지원서비스	서비스 내용
지역 특화 (구별)	① 의료돌봄	찾아가는 건강교실	건강심리지원 서비스(28개동 한방, 물리, 웃음치료)
		맞춤형 이동 진료소	취약가구 밀집지역 한방, 물리 웃음치료, 치매검사
	② 마음돌봄	취약계층 정서지원	취약가구 밀집지역 힐링케어(원예, 미술, 공예 등)
		중장년 1인 세대 지원	중장년 동아리 운영(건강방상 요리 프로그램 등)
		이웃이웃돌봄	이웃돌봄의 위기가구 안부확인 및 간식배달 등
	③ 생활돌봄	취약계층 이사지원	노인, 심한 장애인 1인가구 이사비(25만원) 지원
		방문 이불빨래서비스	찾아가는 취약계층 이불 빨래 서비스 지원
	④ 사례관리	사례관리 사업	고위험 사례관리대상자 별도 지원
통합돌봄 센터		사례관리사 및 센터 운영	
소계		4개 사업 8개 서비스	

긴급 돌봄	위기상황 돌봄서비스	위기 가구 긴급지원서비스
-------	------------	---------------

18

2023년 「광주다움통합돌봄사업」 자활사업 참여 현황

1. 센터별 참여 내용

[광주광역시자활센터 조사 : 2023년 4월 5일 현재 기준]

	가사 지원	식사 지원	동행 지원	안전생 활환경	주거 편의	방문 세탁	방역 방충	합계
광산	●	●		●	●			4
광산어등	●	●						2
남구				일반 기업	일반 기업	●		1
동구	●	●			●			3
북구동신		●	●			●	●	4
북구일터	●			●	●			3
북구희망	●	●						2
서구	●	●		●				3
서구 상무	●							1
합계	7	6	1	3	3	2	1	23

19

2023년 「광주다움통합돌봄사업」 자활사업 참여 현황

2. 센터별 사업 예산(천원) - 실 사업비 92억원

	가사 지원	식사 지원	동행 지원	안전생 활환경	주거 편의	방문 세탁	방역 방충	합계
광산	107,212	139,200		244,000	78,600			569,012
광산어등	124,266	179,200						303,466
남구	()	()		()	()	60,000		60,000
동구	112,500	220,000		()	50,000			382,500
북구동신		171,360	64,540			40,000	18,000	293,900
북구일터	20,000			70,000	48,000			138,000
북구희망	44,820	171,360						216,180
서구	114,204	194,400		90,000	()			398,604
서구상무	114,204							114,204
합계	637,208	1,075,520	64,540	404,000	176,600	100,000	18,000	2,475,866

20

□ 자활사업 참여 종합 현황

1. [광주다움 통합돌봄] 총예산 92억원 중 24.7억원으로
약 26.9% 자활사업에서 참여
2. 광주광역시 9개 지역자활센터 23개 자활사업단/자활기업 참여
3. 서비스 분야별 네트워크 3개 구축
 - 가사지원서비스, 주거복지(안전생활환경 간편수리), 식사제공
4. 추가 돌봄사업과 연계사업으로 추진 중

21

□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 이전 유사 사업 경험

1.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커뮤니티 케어)] 경험
 - 2019년 6월 ~ 2022년 12월 1단계(시범사업)
 - 2023년 7월 ~ 2025년 12월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
2. 북구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경험
 - 2020년 9월 ~ 2021년 12월
3. 북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노인분야) 시범사업] 경험
 - 2020년 5월 ~ 12월 (코로나 상황으로 대상자 모집 어려움으로 중단)
4. 북구 외 [복지1촌 (1인 가구 중 돌봄이 필요한 고위험자)] 사업 경험
 - 2019년 3월 ~ 현재 (안부서비스, 주거편의, 생활안전 등 - 공익형 사업)

22

□ [광주다움 통합돌봄] 추진과 자활사업

1. 광주광역시와 5개 구청의 강한 사업 추진 의지에 기반

- 지방 자체 예산 확보, 인프라 구축,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역할 강화 등
- 시의회 뒷받침 (조례 :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지원조례 (2022.11.28 제정))

2. 사업 추진 시 자활사업 참여 고려

- 지역자활센터(자활사업) 참여와 **활용** 고려
- 광주광역시청, 구청과 지역자활센터와 사업 협약 진행

3. 자활사업 참여자의 동기 부여와 인센티브

- 자활근로사업단(공익형)의 매출 발생 (2023. 2분기 정산 후 지급)

4. 추가 돌봄사업 분야와 자연스러운 사업 연계

- 북구, 서구 : 2023. 7 ~ 2025. 12 [**노인 의료돌봄지원 시범사업**]
- 북구, 남구 : 2023. 7 ~ 2024. 6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부의 역할

1. 지역자활센터

-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 구청과 업무 협의(민원, 개선사항 등)

2. 광역자활센터

- 분야별 네트워크 운영 지원
- 사업 현황 자료 취합 및 분석
- 지부와 정책 협의

3. 지부

- 지역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 간 협력
- 사업 / 정책 제안
- 분야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지역 통합돌봄 사업 참여로 얻을 수 있는 것

1. 지역자활센터와 자활사업의 **지역사회 내 역할 확대**
2. 자활사업 참여자의 **일자리 확대와 가구소득 증가**
3.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시행 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역할**
4. 자활사업 **전국 표준화 사업화**

	광주광역시 (2023.5.31)	부산광역시 (2023.5)
총인구수	1,425,739명	3,362,430명
남자	704,489명	1,614,226명
여자	721,250명	1,695,035명
세대수	654,682세대	1,561,666세대
65세 이상 노인	213,291명 (15.0%)	681,885명 (20.6%)
1인 가구	212,385 가구 (34.5%)	약487,300가구 (34.0%)
행정 기구	5개구 97개동	16개 구/군 205개동

□ 지역자활센터에 제언

1. 통합돌봄사업 설계 과정에서 지역자활센터 적극 참여 필요

- 통합돌봄사업 기획 단계부터 참여
- 자활사업 현재와 이후 상황을 고려한 사업 준비가 가능

2. 사업 준비는 지금부터 ...

- 년도 중 사업 참여시 사업단 구성 및 인력 및 예산 확보에 어려움
- 통합돌봄사업 참여에 맞는 자활근로사업단(자활기업 참여) 준비
- 사업 분야별 네트워크 운영
 - 사업 내용과 방식에 대한 표준화 기준 마련
 - 사업 지역별(구별) 편차 최소화
 - 유사사업 추진 경험 공유

27

□ 지역자활센터에 제언

3.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 개발

- 지역사회(구/군, 도시/도농어촌 등)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 사업

4.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준비

- 사업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표준화
-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5. 통합돌봄사업을 어떻게 유지 · 확대해 나갈 것인지 과제

-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시 대응방안

• 사회서비스(공익형) 운영 목적도 어떻게 함께 실현할 것인가?

- 무료 간병사업 등 공익형 사업 운영목적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방안

28

□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은 이제 만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구축을 위해 다양한 직능이 참여하고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다소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서
본격적인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사업을 실행하는데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은
소중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EMO

토론문

자활에서 사회서비스사업 수행의 필요성과 과제

안혜경

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대표

자활에서 사회서비스사업 수행의 필요성과 과제

(사)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안혜경

1. 사회서비스 환경

-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 가구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인구소멸 위기 대응 차원의 이슈가 됨.

가. 대상 : 현재 저소득 중심의 서비스 변화 필요

- 신중년(50~69세) 대상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가족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재가복지서비스나 시설(요양시설/요양병원) 등에서 돌봄을 받고 싶다고 응답해, 노후에 자녀들에게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인식이 강함.
- 심각한 고령화 속도, 보험금 각출부담 (2023년, 건강보험료 12.81%) 대비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역차별에 대한 불만 증가

나. 영역 : 통합적, 다양한 서비스 욕구

- 개인을 기반으로 가족단위 지원에서 지역사회 단위 제공
-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을 돌보는 시간은 평일 기준 평균 9.2시간(월평균 29.5만원)으로 현재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필요한 부분은 시간대 확대, 지원비용 확대이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돌봄서비스 종류의 확대가 높게 나타났다. (2022년 부산복지실태조사 기초분석)

2. 정부 정책: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 고도화

가. (수요대응) 수요가 충분한 중산층까지 확대를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 마련

- 본인 부담 차등화, 가격탄력제 도입 등 규제 개선으로 대상 확대
-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된 융합형 돌봄모형 개발, 고품질서비스 개발
- 틈새돌봄, 통합제공하는 생활형 사회서비스로 기존제도 보완
-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 생활 사회서비스 사업 선정(280억, 10개 시도, 60개 시군구)
 - (대상) 중장년-몸이 아픈 경우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 99.7만명
 우울할 때 사적으로 대화할 사람이 없는 경우 92.6만명 추정
 「2021 사회통합실태조사」
 - 가족돌봄청년-약 6만명, 전체 청년의 0.6%로 추정 「2022 청년의 삶 실태조사」
 - (사업내용) 재가돌봄,가사+동행,심리,교류 증진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선정(2023.7~2025.12, 12개 지자체)
 - (대상)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욕구 기반 보편적 제도 지향)
 - (사업내용)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지원:방문형의료서비스,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나. (공급혁신) 신규·미흡기관 컨설팅, 규모화·조직화 지원, 품질인증 확대
 - 성장지원 연계·협력 강화로 서비스 효율화
 -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체인력, 금융지원 수입

다. (산업육성) R&D 확대, 투자펀드 조성, 첨단기술 융합서비스 실현

라. (혁신기반)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 사회서비스원을 사회서비스진흥기관으로 개편
 - 사회서비스지원및진흥법안 제안

3. 자활사업과 사회서비스

가. 문제의식에 동의 함.

- 소득 창출 가능, 직접서비스 제공 가능한 ‘지역자활센터’의 적극적 참여로 수익창출과 참여자 탈수급 제고의 기회로 활용
- 지역자활센터의 역량, 연대를 통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
-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공적단위로 자활사업의 위상 제고
- 참여자의 자부심 함양 등

나. 경험 : 사회형(광역)자활기업 : 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 복지간병 자활근로사업단 → 간병공동체(자활기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 아가마지(자활기업)
- 장애통합교육 자활근로사업단 → 장애통합교육실무원(자활기업, 취업형)
- 그 외) 가사간병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기요양사업 등

다. 고려사항

-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과 사회서비스는 다른 영역인가?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망(지역내 사회서비스 확대, 자활기업 창업 등)
- 자활사업 운영기준에 저촉되지 않고 성과로 인정될 것
- 자활참여자들의 업무 범위 파악
- 수익금 처리방안 등

4. 제안

- 사회서비스 확대에 선제적 대응 필요
서비스 내용과 제공방식의 차별화 도모
- 자활사업은 공익성을 담보로 보호된 시장을 만들어왔음.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강점으로 작용(학교청소, 간병 및 바우처사업, 자원 재활용, 커피박재활용 등)
- 가사, 동행, 심리, 영양, 주거, 위생, 의료영역까지 이용자의 욕구 확대되고 있음.
- 내부 자산으로 시범사업 가능 (내일키움, 희망키움, 청년희망키움 등 대상 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발굴, 제공)
- 부산시 정책협의로 예산 마련
- 자활센터별, 권역별, 자활기업과 연계 등 다양한 방법 모색. 끝.

토론문

경상북도 자활사업 사례 행복경로당 지원사업

황진석

경북광역자활센터 센터장

행복 
경로당

발표 황진석

경북광역자활센터

경상북도 자활사업 사례 행복경로당 지원사업

경북형 행복경로당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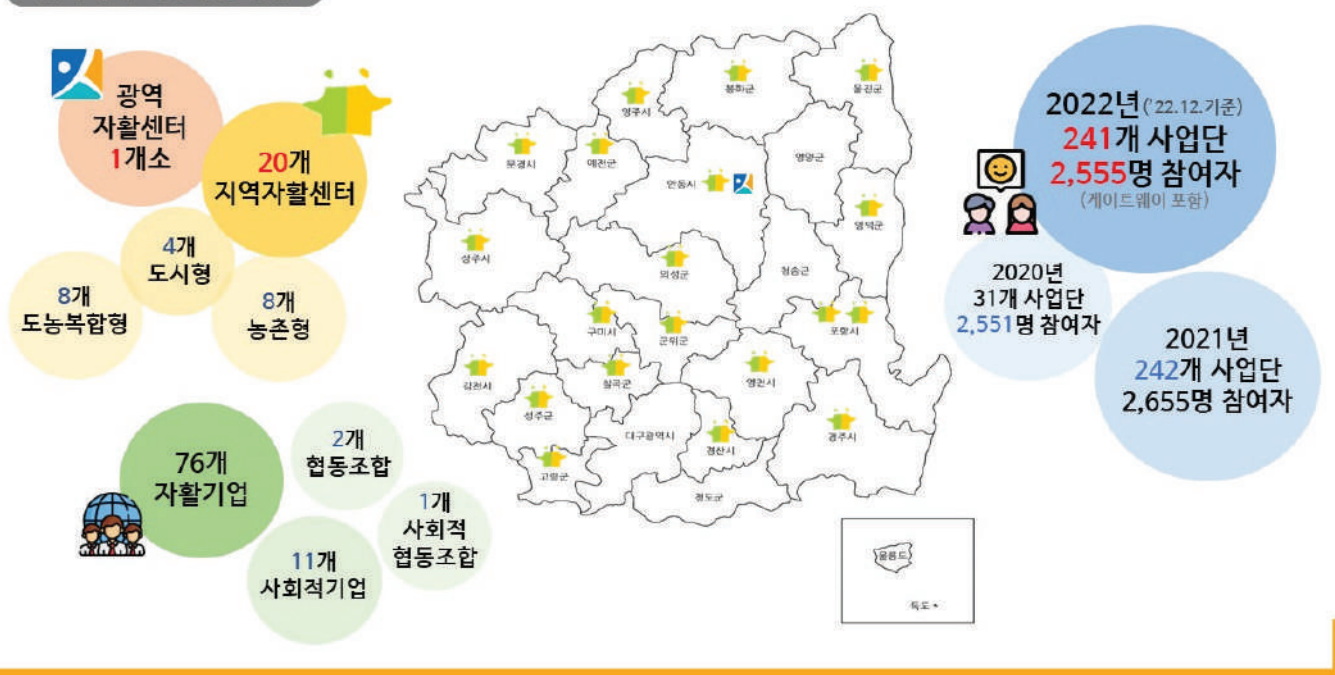
CONTENTS

: 사례발표 순서

- 1_사업추진 배경 및 현황
- 2_ 사업내용
- 3_ 사업운영 방법
- 4_ 사업 성과
- 5_ 유사사업 경험
- 6_ 향후전망 및 추진방향

경북지역 자활사업 현황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경북광역자활센터



경상북도 민선 8기 비전 및 공약



경상북도 민선 8기 비전 및 공약

⑤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기회



경상북도 민선 8기 비전 및 공약

(관리카드)
93

행복도우미 행복설계사를 통한 맞춤형 복지실현

사업주체	자체	임기구분	임기내	신규여부	신규	예산구분	예산
주관부서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부정 부정 부정 부정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8-3743 88-3744 88-3752 88-3743	중앙협조	재정지원

❖ 공약목표

-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도민에게 필요한 개인 맞춤형으로 설계 지원

□ 필요성

- 탑-다운 중앙획일적 → 지역특화형 복지 → 나를 위한 복지로 변화
- 수요자가 원하는 복지를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제공
- 도내 노인인구 60여 만명 시대 진입에 따른 선제적 정책개발 및 미래형 노인 복지정책 대응을 위한 새로운 경로당 모델로 전환 필요

경상북도 민선 8기 비전 및 공약

□ 공약개요

-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행복설계사 운영
 - 23개 시·군 330개 읍면동 각 1명 배치
 -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설계 지원
 - 증가하는 신중년(50~70세) 유희인력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 경북형 행복경로당
 - 23개 시군 경로당 밀반찬 지원사업 추진
 - 경로당 어르신 131,019여 명, 지원횟수 연 16회(월 2회),
- 경로당 행복도우미
 - 23개 시군 경로당 560명(행복도우미 480, 파트타임강사 80)
 - 경로당 내 건강 프로그램 보급,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 경로당 깔고미사업단
 - 23개 시군 경로당에 실내·외 위생관리 및 환경정비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업량 8,500명(시·군 수요조사 반영 후 변경 가능)

행복이웃 경로당



기간 : 2023. 3~12월(8개월, 7~8월 중단)

인원 : 131,019(전체 42%)

회수 : 16회(주 2회 * 8개월)

단가 : 3,000원(1인당)

사업비 : 6,798,864천원(도비 2,039,660천원, 시군비 4,759,204원) 도 30%, 시군 70%

<산출내역>

- 밀반찬 : 131,019명X3,000원X16회=6,288,912천원

- 배달 : 7,968개소X4,000원X16회= 509,952천원

○ 밀반찬 서비스

시군명	경로당수	회원수	민반찬 이용인원	이용자 비율	소요예산액(천원)			반찬 소요예산액(천원)			배달 소요예산액(천원)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30%)	시군비(70%)	계	도비(30%)	시군비(70%)
	7,968	311,308	131,019	42	6,798,864	2,039,660	4,759,204	6,288,912	1,886,674	4,402,238	509,952	152,986	356,966
포항시	6	19,000	9,000	50	51,000			47,000		3,000	3,000		3,000
경주시	6	25,000	7,000	30	41,000			37,000		4,000	4,000		4,000
김천시	5	17,000	8,000	50	44,000			41,000		3,000	3,000		3,000
안동시	5	26,000	9,000	35	48,000			45,000		3,000	3,000		3,000
구미시	4	13,000	6,000	50	35,000			33,000		2,000	2,000		2,000
영주시	3	14,000	4,000	30	23,000			21,000		2,000	2,000		2,000
영천시	4	18,000	5,000	31	30,000			27,000		3,000	2,000		2,000
상주시	5	23,000	11,000	50	59,000			55,000		4,000	3,000		3,000
문경시	3	16,000	8,000	50	41,000			39,000		2,000	2,000		2,000
경산시	3	17,000	8,000	50	44,000			41,000		3,000	2,000		3,000
의성군	4	22,000	6,000	30	35,000			31,000		3,000	3,000		3,000
청송군	2	7,000	3,000	50	20,000			18,000		2,000	1,000		1,000
영양군	1	5,000	2,000	50	14,000			13,000		1,000	1,000		1,000
영덕군	2	9,000	4,000	50	24,000			23,000		2,000	1,000		2,000
청도군	3	12,000	6,000	50	32,000			30,000		2,000	2,000		1,000
고령군	2	6,000	3,000	47	15,000			14,000		1,000	1,000		3,000
성주군	2	10,000	5,000	50	26,000			25,000		1,000	1,000		3,000
칠곡군	2	9,000	4,000	50	24,000			22,000		1,000	1,000		3,000
예천군	3	11,000	3,000	30	19,000			16,000		3,000	2,000		1,000
봉화군	2	10,000	5,000	50	26,000			24,000		2,000	1,000		4,000
울진군	2	9,000	3,000	31	16,000			14,000		2,000	1,000		2,000
울릉군		1,000		50	2,000			2,000					5,000

경북형 행복경로당 지원사업 실시지역



포항시,경주시,경산시
영천시,성주군,청도군,봉화군

22개 시군중
7개 시군에서 진행중



1개
사회적
기업

경북형 행복경로당 지원사업



계획수립

경상북도 어르신
복지과 및 희망
하는 시군과 협
의를 통해 사업
계획수립



사업설명회

시군 관계 공무
원 대상 사업설
명회 진행



지역자활센터협의

전체 지역센터와
사업내용 협의
사업 희망 센터
모집



계약및 사업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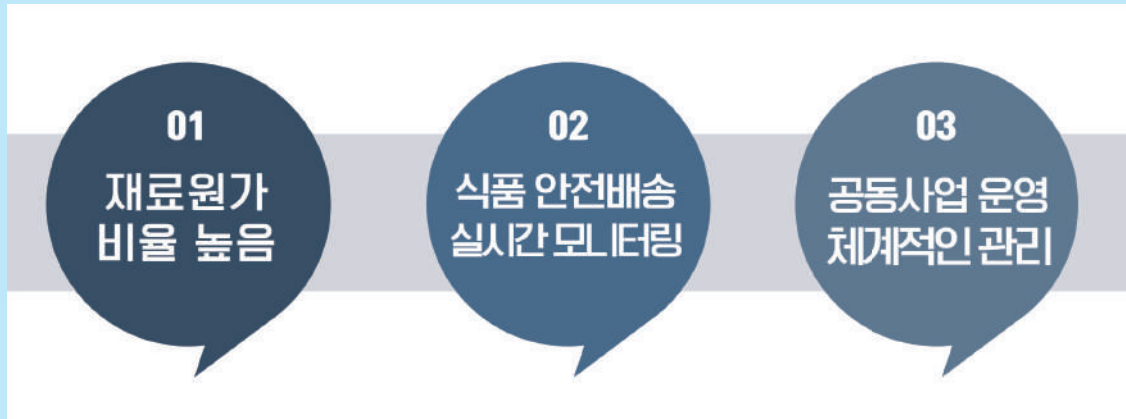
보조사업수탁
조달청 입찰진행
지역자활센터와
사업계약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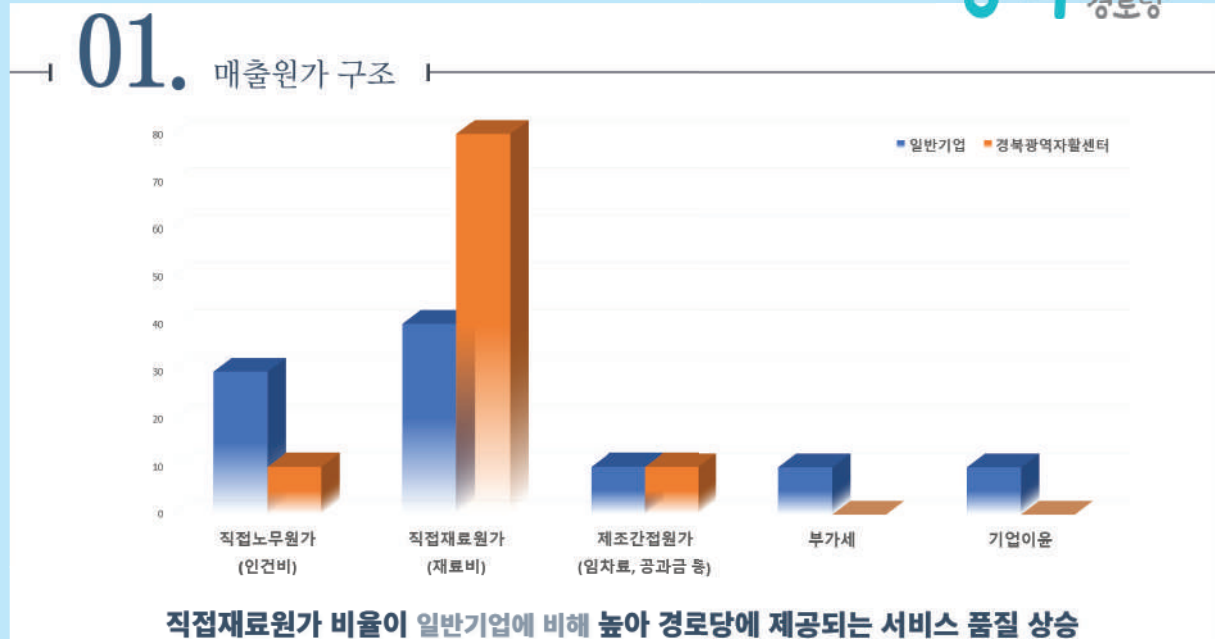
모니터링및 후원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 진행
사업후원처 발굴
사업지원

경북형 행복경로당 지원사업



경북형 행복경로당 지원사업



02. 식품 변질 없이 안전배송



| 2-1. 냉동탑차를 활용한 식품 배송 서비스

- 날씨와 상관없이 적정 온도 유지 가능
- 식품 상태 큰 변질 없이 관리 용이



02. 실시간 모니터링

프로젝트 협업 업무관리 메신저 OKR 화상회의 보안기능 시스템 연동 다운로드



| 2-2. 플로우(업무 협업툴)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 어디서든 업무가 가능하며 모바일과 PC를 연동하여 실시간 업무 공유 가능
- 메신저를 통해 회사-팀-개인 간 조직과 구성원 간의 정확한 업무소통 편리

03. 공동사업을 통한 체계적 관리

| 3-1. 전문 관리자 유무



전문 영양사의 식단 관리

전 지역 동일한 서비스 제공 가능
(영양 개선, 위생 관리, 식품 검수 관리 등)

식단표 예시

너비아니조림 도토리묵무침 시금치 나물	삼치구이 메추리알 장조림 오이초무침	오리불고기 어묵볶음 청경채나물무침
춘천달갈비 새송이버섯볶음 가지나물볶음	안동찜닭 고구마 튀김 미역줄기무침	갈비찜 상추파겉절이 연근채조림
훈제오리구이 부추 겉절이 연두부찜*양념장	닭볶음탕 두부조림 고사리들깨나물	돈육한식잡채 메밀전병 감자채전

경북형 행복경로당 지원사업

03. 공동사업을 통한 체계적 관리

| 3-1. 전문 관리자 유무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절기에 맞는 특식 제공
(삼복→삼계죽, 동지→단팥죽)



모니터링 요원의 상시 서비스
만족도 체크로 서비스 개선 노력

경북형 행복경로당 지원사업



03. 공동사업을 통한 체계적 관리

| 3-2. 식자재 구매

일반 업체



개별 구매
- 구입단가 높음

경북광역자활센터



대량 구매
- 구입단가 저렴 → 품질개선
-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동일한 입찰방식

경북형 행복경로당 지원사업

03. 공동사업을 통한 체계적 관리

| 3-3. 회계처리 및 사후관리

일반 업체	경북광역자활센터
밀반찬 제공 외 별도관리가 어려움	서비스/품질 개선 위한 사전교육 (CS교육, 조리교육 등)
	
개별 업체 - 회계정산	보조금 정산방식 (회계처리 철저)

경북형 행복경로당 지원사업



사업 운영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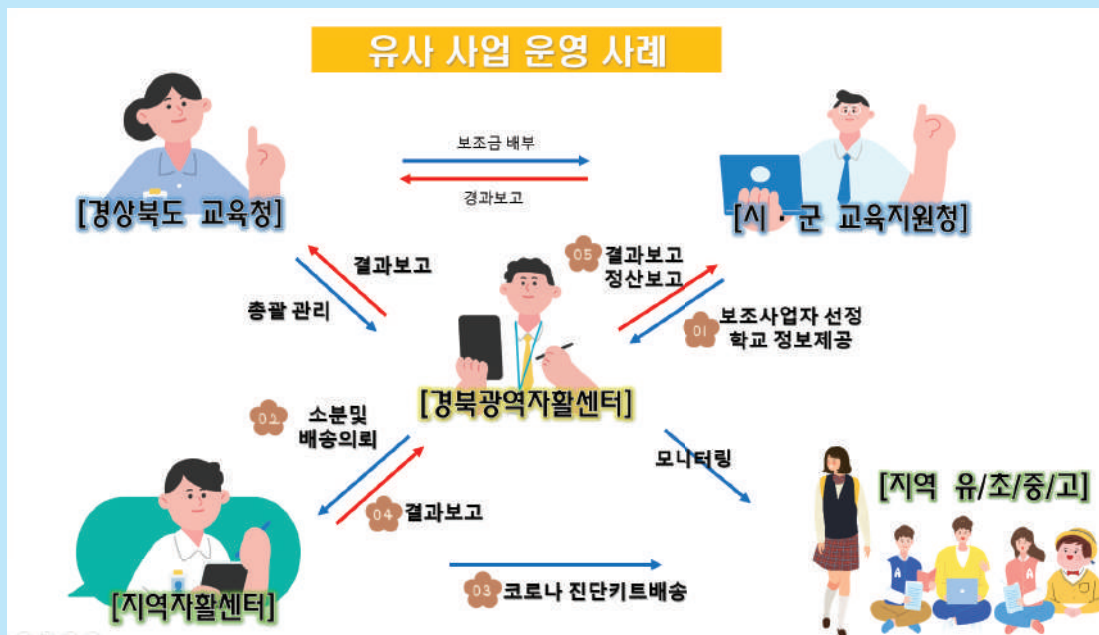
경북형 행복경로당 지원사업 이전 유사사례

04. 유사 사례



사업명	경상북도 교육청 연계, 신속항원검사키트 소분 및 배송 지원
목적	신속항원검사키트 소분 및 배송을 통한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사업기간	2022년 2월~6월
주요내용	경상북도 내 교육지원청 9개소 (경주, 구미, 문경, 안동, 영주, 예천, 울진, 포항, 칠곡) 키트 수령 지역별 수량에 맞는 검사키트 개별 포장 학교별 필요 수량에 맞춰 배송

경북형 행복경로당 지원사업 이전 유사사례



경북형 행복경로당 지원사업 향후 계획

행복경로당 지원 사업 확대

- 현재 22개 시군중 7개시군에서 진행중이며 24년에 다른 지역으로 확대 추진중
- 물가상승에 따른 단가 조정추진

행복경로당 사업을 통한 파생사업 개발

- CJ프레스웨이와 반판브랜드 개발중 23년중 오픈 예정
- 경로당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지원중

2023년 시범사업으로 2024년 확대예정



자랑스러운 **활**동 경북자활의 미래를
경북광역자활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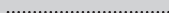
행복 
경로당

토론문

광진구 자양4동의 어르신들의 삶

박용수

서울통합돌봄추진위원회 위원장



광진구 자양4동의 어르신들의 삶

동네 보행을 어떻게 조사할까 : GPS를 이용한 검증과 데이터화



서울연구원(2017)

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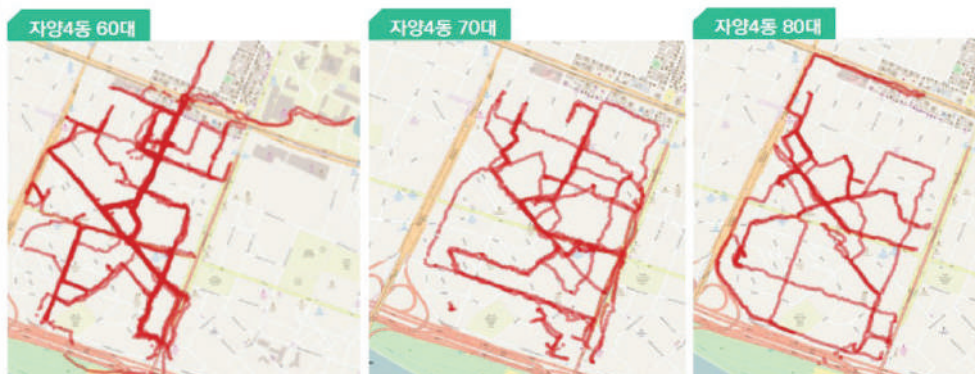
행정동별 보행패턴 : 자양4동(29명)



서울연구원(2017)

3/ 31

집단별 보행패턴 : 연령대



서울연구원(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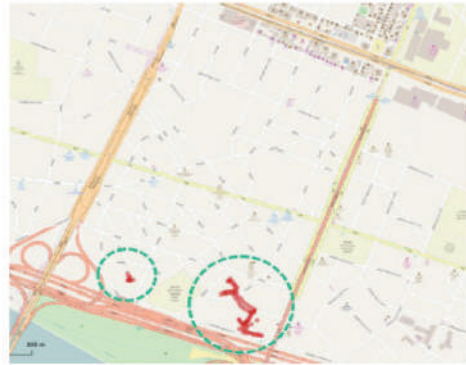
4/ 31

사례별 보행패턴 : 활기차지 않은

자양4동

이OO씨 : 0.5 km

(여성/76세/생활비 50만원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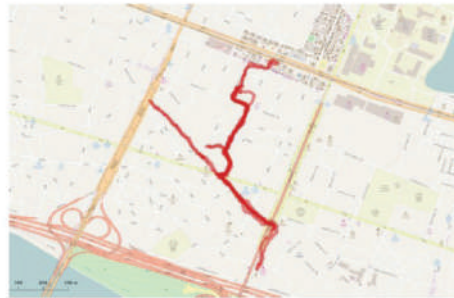
집 14:00 경로당 집 18:03

사례별 보행패턴 : 활기찬 노인

자양4동

오OO씨 : 7.1+α km

(여성/68세/소득 150~200만원)



집 자양동 성당 집 잡실 노문산 집 한강공원 집
9:00 종합수영장 재래시장 23:30

서울연구원(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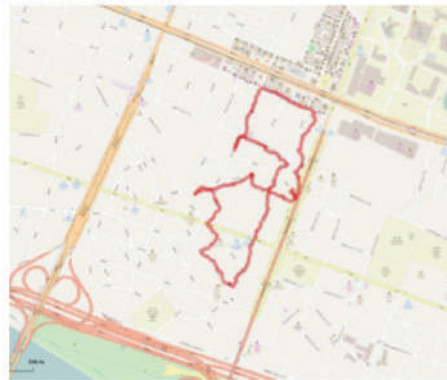
5/ 31

사례별 보행패턴 : 가난한 노인

자양4동

장OO씨 : 2.5 km

(여성/75세/소득 50~1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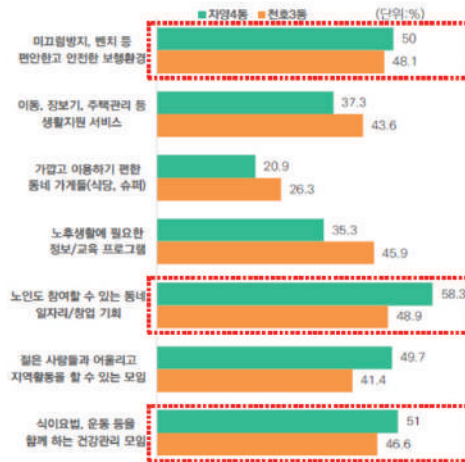


집 대동아파트 공영주차장 청정빌리스 자양4동 우리 집
8:00 빌라 주민센터 농축산물 집
할인마트 9:55
공공근로(1.8km)

서울연구원(2017)

6/ 31

앞으로도 이 동네에서 계속 살기 위해 더 필요한 것은



국제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필요한 정보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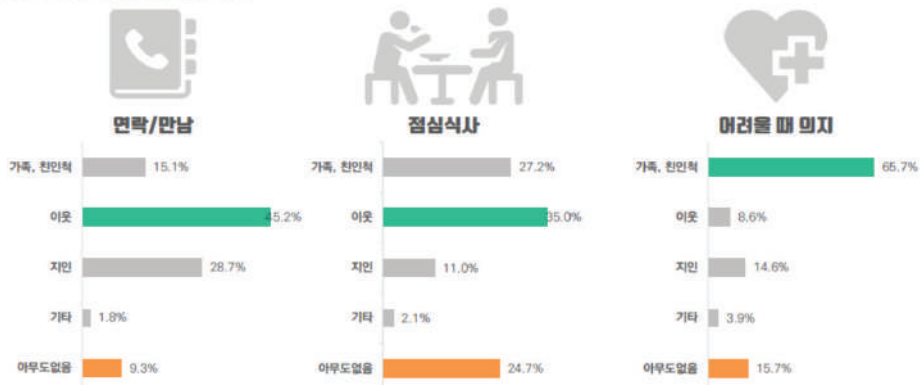


서울연구원(2017)

7/31

현재 사회적 관계의 범위와 수준은

! 다음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서울연구원(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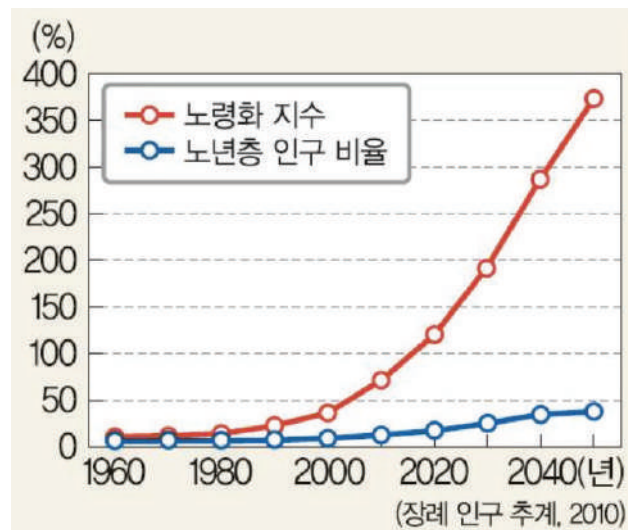
8/31

광진통합돌봄 조직화 모델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삶은 지속 가능한가?

■ 초고령화 시대

-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



10/31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삶은 지속 가능한가?

- 대부분이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늑어가고 싶어함
- 대부분이 현재 가구 구성을 유지하고 싶어 함

앞으로 어디서 누구와 살고 싶은가

출처 : 서울연구원

I 어디서

79.2%
현재 살고 있는 집/동네



자양4동 83.0%, 천호3동 74.8%
※ 2014년 노인실태조사 74.2%

II 누구와(중복응답)



11/31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삶은 지속 가능한가?

- (2017. 5. 연합뉴스) 노인, 사망 전 20개월을 요양(병)원에서 보냄
- 10년간 의료비 3조, 불필요한 입원 줄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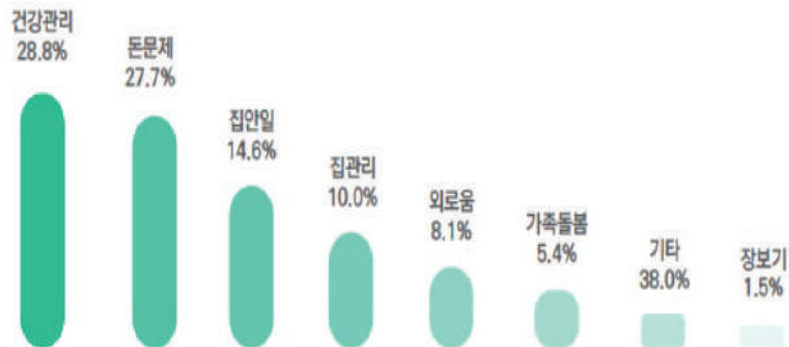
12/31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삶은 지속 가능한가?

■ 왜 안 되는가?

I 생활상 가장 어려운 일(N=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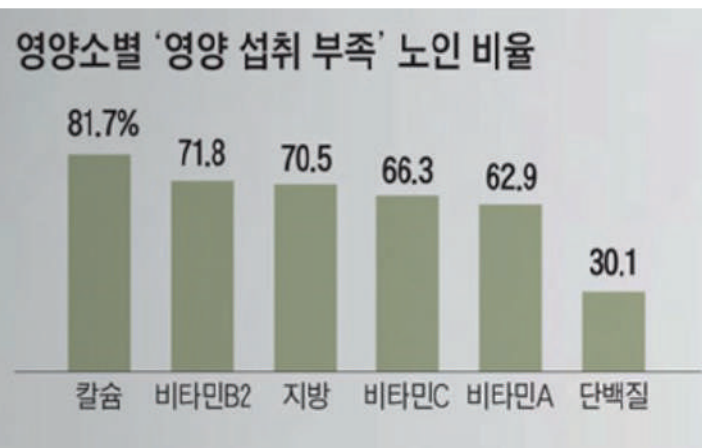
출처 : 서울연구원



13/ 31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삶은 지속 가능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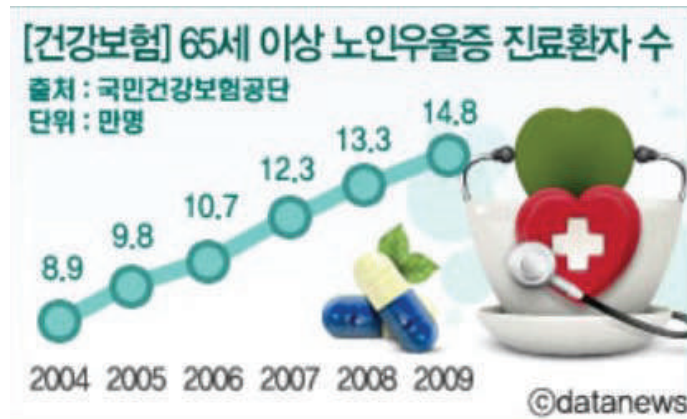
■ 영양실태



14/ 31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삶은 지속 가능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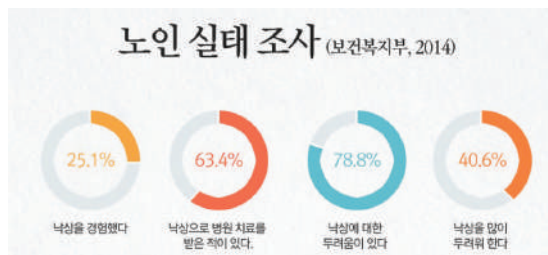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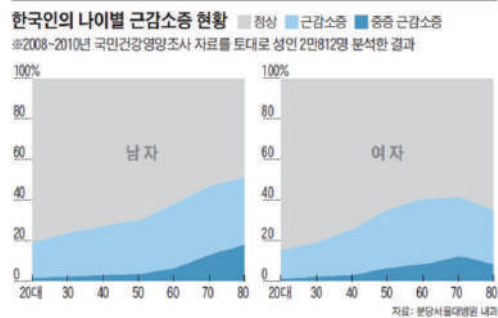
- 영양실태
- 우울상황



15/31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삶은 지속 가능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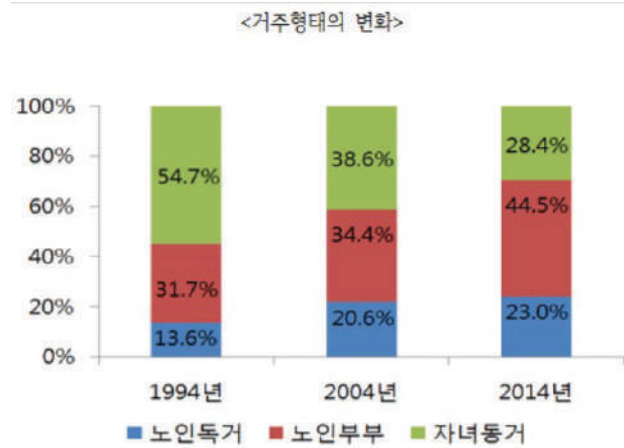
- 영양실태
- 우울상황
- 운동실태



16/31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삶은 지속 가능한가?

- 영양실태
- 우울상황
- 운동실태
- 거주현황
노인 10명 중
7명은 자녀와
동거 안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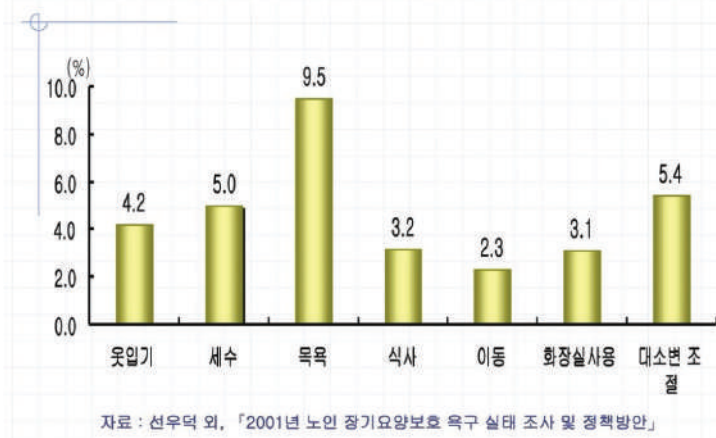


17/31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삶은 지속 가능한가?

- 영양실태
- 우울상황
- 운동실태
- 거주현황
- 일상생활
수행능력

65세이상 인구의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제한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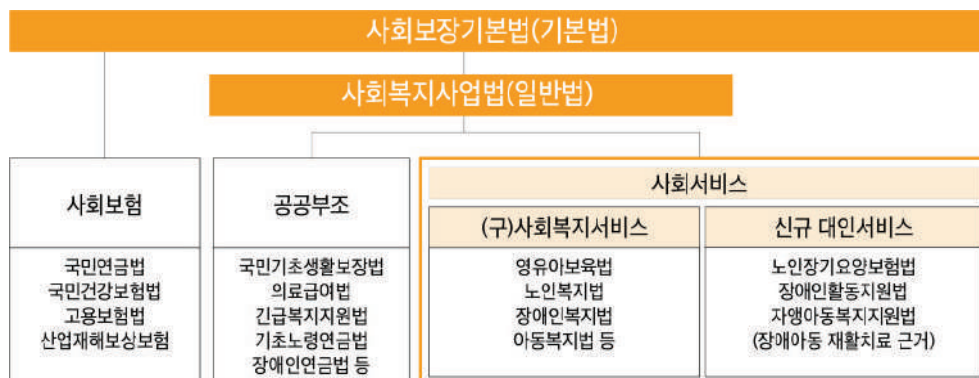


18/31

제3섹터의 돌봄 역할

사회보장체계와 사회서비스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구법,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 상담 · 재활 · 직업소개 및 지도 ·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 / 현행법 제3조 제4호, “사회서비스”란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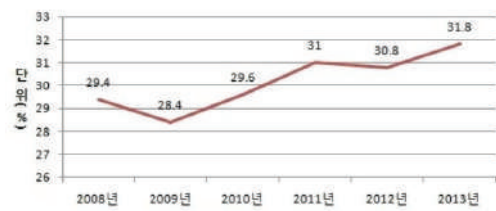
사회적경제의 개념

✓ 시장의 실패

- 갑의 행패
- 사회양극화
- 근로빈곤층 400만시대
- 고용없는 성장



연도별 대졸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자료 : 통계청

21/31

사회적경제의 개념

✓ 국가의 실패

- 복지의 약화
- 복지재원의 한계
- 민주주의의 한계

‘돈 없는’ 서울 독거노인 6만5000명...복지 ‘빨간 불’
서울시, '2014 서울통계연보' 공개...저출산 고령화로 '항아리형' 인구 구조

머니투데이 남영도 기자 | 입력 : 2014.11.19 06:00



연말 영하 10도를 뚫고도는 한파가 겹쳐지는 가운데 9월 서울 동작동 복지관에서 주민들이 주위를 피하
기때 벽앞에 두툼한 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사진=뉴스1

✓ 2014 노인실태보고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

-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은 우울증
- 독거노인의 경우 43.7%가 우울증
- 노인 빈곤율은 49.6%
- 노인 자살률은 OECD 평균의 6배인 인구 10만 명 당 55.5명

2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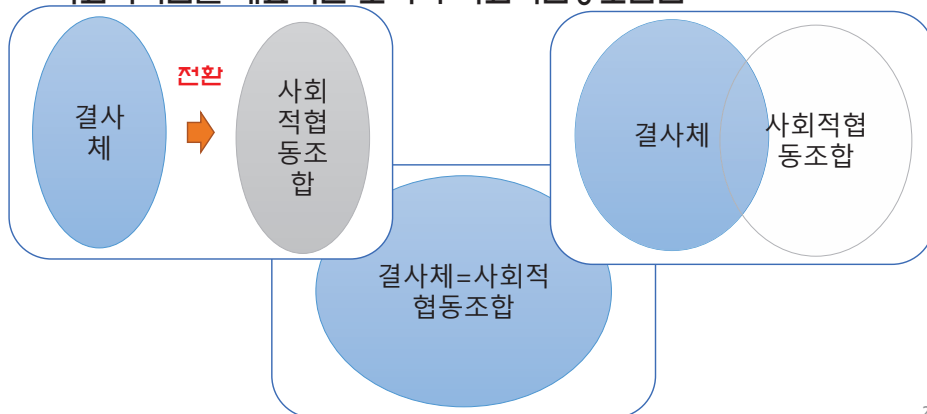
✓ 제3섹터에서 사회적경제 등장

- 국가의 실패
- 시장의 실패
- 복지 축소로 인한 복지혼합
- (돌봄)사회서비스 공급확대
- 공동체성 및 지역사회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주체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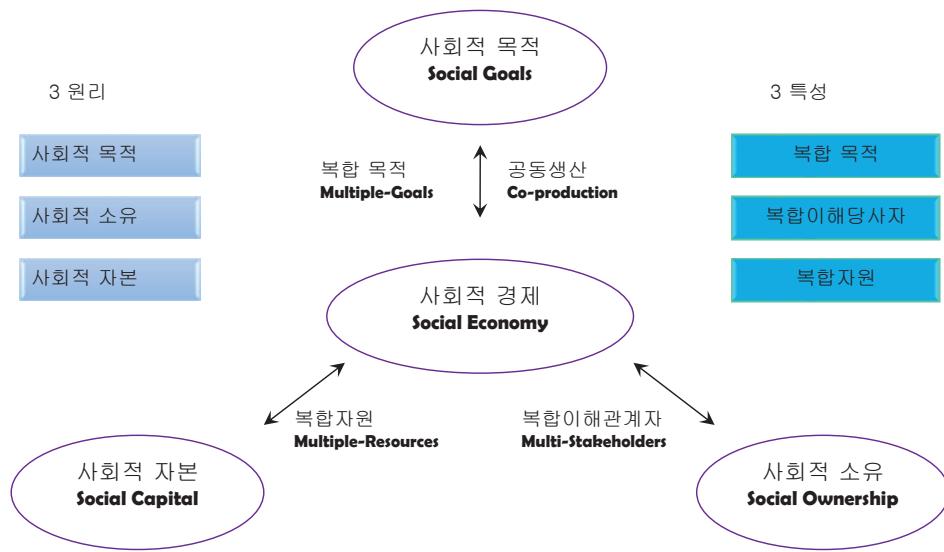
23/ 31

✓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

- 이탈리아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처음 출현함
- 지역 결사체 조직이 사회적협동조합의 모체이며 **지역 결사체의 사업조직이 사회적협동조합임**
- 사회적기업을 대표하는 조직이 사회적협동조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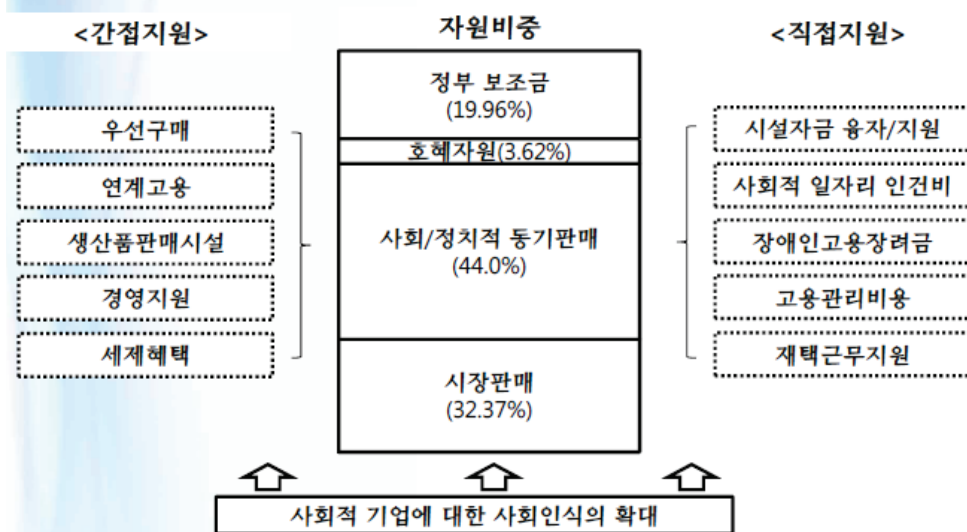
24/ 31



사회투자지원재단

25/ 31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복합자원(Multiple Resources)



사회투자지원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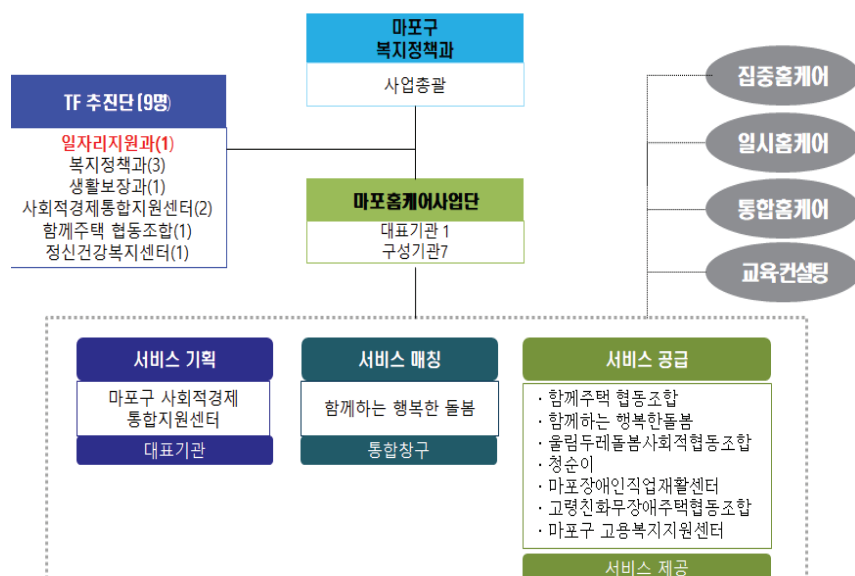
26/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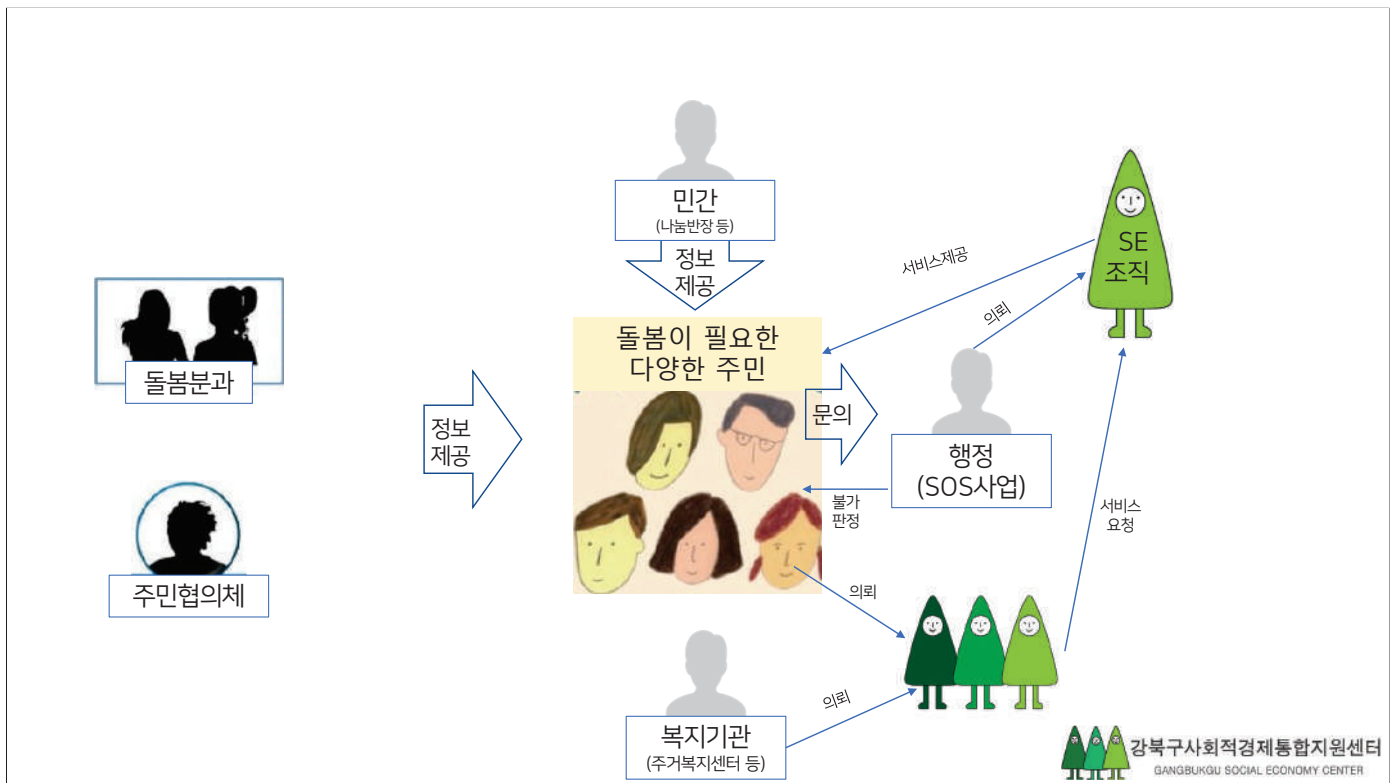
돌봄의 사회화 → 사회서비스 도입

사회서비스의 사회화 필요

- 공동생산
- 공동(품질 및 운영)관리
- 공동평가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결합
- 서비스 통합 및 융합
- 자원혼합(자원봉사, 노노케어, 서비스)

주거체계 개편과 사회적경제 혁신성장방안 사례: 마포구 홈케어 사업단 서비스 추진체계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 실현!!!

- 영양실태
- 우울상황
- 운동실태
- 거주현황
- 일상생활
수행능력

- 영양서비스
- 정서서비스
- 운동서비스
- 주거편의서비스
- 생활편의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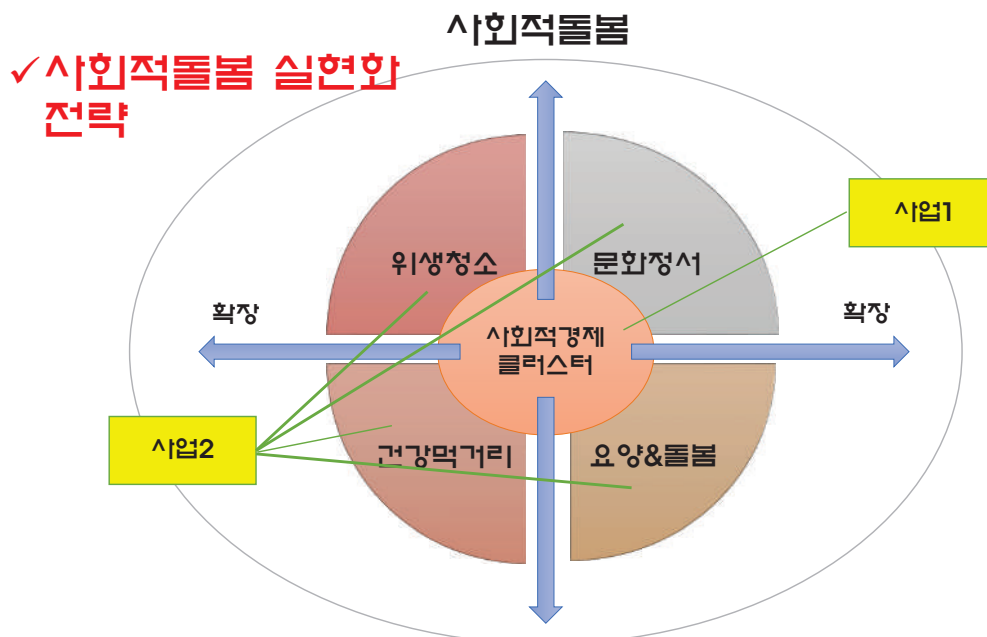
돌봄클러스터 사업개요

✓돌봄서비스의 문제 및 가능성

- 광진구 내 공공부문 돌봄 서비스 규모 1,477명(보육, 아동 제외)
-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공급점유율은 13.1% 차지
- 사회적경제기업 클러스터의 초기 서비스와 상품 수요자로 활용 가능

구분	방문요양	노인돌봄	가사간병	장애인활동	소계
이용자 수	981	94	18	384	1,477
도우누리	38	36	13	107	194
공급점유율	3.9	38.3	72.2	27.9	13.1

31/ 31



32/ 31

사업1 사회적경제기업 클러스터 성장 전략을 통한 돌봄산업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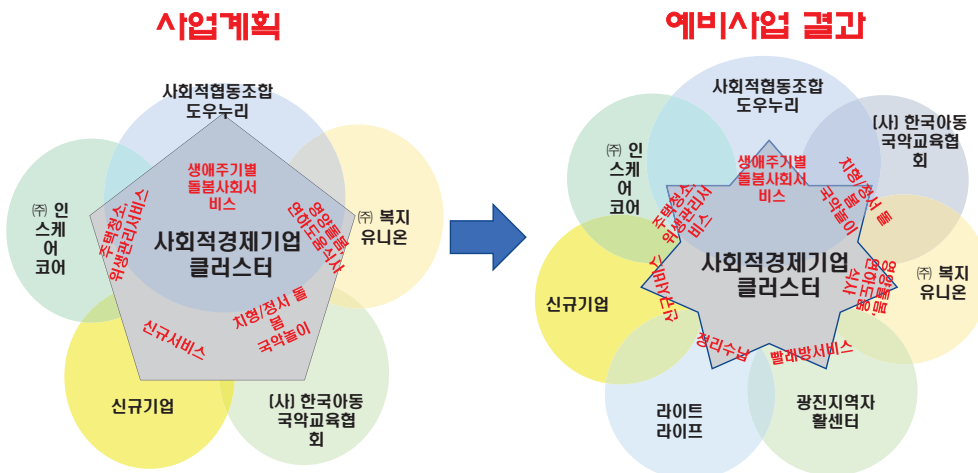
- 사회적경제기업 클러스터를 통한 믿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
- 유사&다른 돌봄서비스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협업과 성장
- 이용자 측면에서 원스톱 중합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2 사회적경제기업 클러스터 서비스 · 상품설계

- 영양돌봄 및 연하도움식사 리뉴얼(복지유니온)
- 주택청소, 유생관리서비스, 특수청소상품 리뉴얼(인스케어 코어)
- 인력 및 강사 양성 프로그램 리뉴얼, 신규 돌봄사회서비스 개발(시니어협동조합)
- 치료 · 정서형 돌봄 프로그램 개발(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33/ 31

✓사회적경제기업 클러스터 구성 확대(4⇒7, 3곳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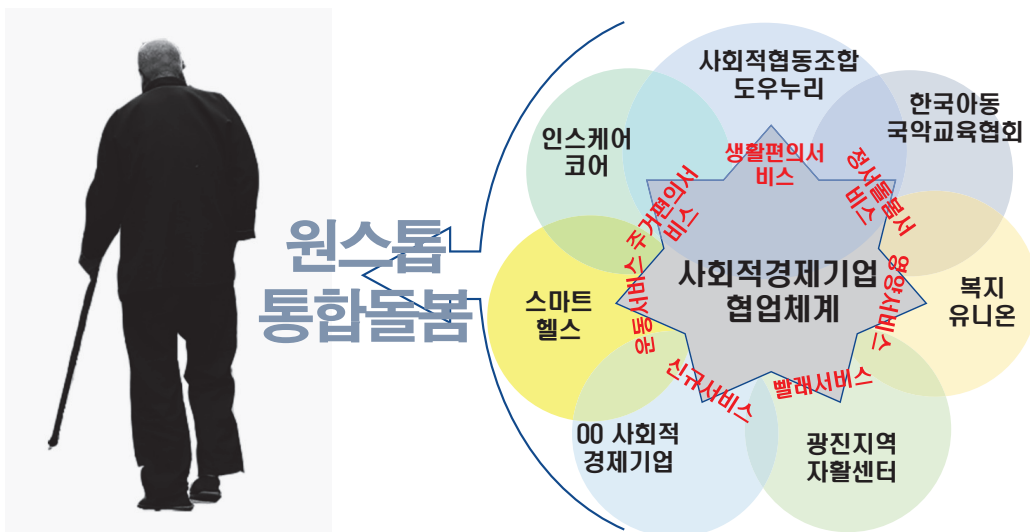


34/ 31

✓사회서비스 리뉴얼 및 재구조화



35/ 31



36/ 31



- **영양서비스**
재가)연하도움식(특허)
공간)열린밥상

- 정서서비스



37/ 31



- 영양서비스
- **정서서비스**
1시간 재가방문
국악 및 놀이활동
- 운동서비스
- 주거편의서비스
- 생활편의서비스

38/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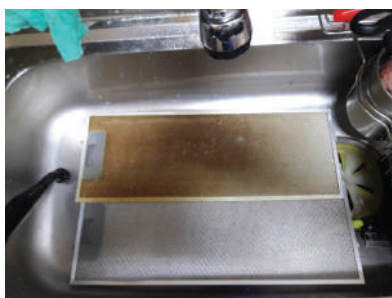


- 영양서비스
- 정서서비스
- **운동서비스**

전자식 노인헬스기구
핸드폰 어플로 관리
성과보상

주거편의서비스

39/ 31



- 영양서비스
- 정서서비스
- 운동서비스

■ **주거편의서비스**

주방, 욕실, 냉장고
위생청소
해충, 향균

- 생활편의서비스

40/ 31



- 영양서비스
- 정서서비스
- 운동서비스
- 주거편의서비스
- **생활편의서비스**
- **요양서비스**
- **노인돌봄서비스**

41/ 31

1. **방문형 Care Vendor**
 - 돌봄 서비스 이용자 가정 방문 판촉
 -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현재 광진구 공급점유율 13.1%
1,477명(보육, 아동 제외) 이상

2. **공간형 Care Vendor**
 - 복합매장 이용자 대상 판촉
 - 돌봄서비스 Complex 운영



돌봄서비스 복합매장 기본계획(안),
클러스터 서비스 홍보 및 식당운영

42/ 31

✓ 클러스터 서비스 고객 타겟

1차 타겟; 1년차

도우누리 이용자
- 재가 210명, 이용시설
119명, 시설 185명
복합매장 이용자
- 시범기간 100명

방문형 Care
Vendor

2차 타겟; 2년차

656명(광사넷 상근직
원), 1,849명(광사넷 조
합원 및 회원)의 고객
회원 등록

광진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관계자
및 윤리적 소비자

3차 타겟; 3년차

일반소비자 1만명

공간형 Care Vendor
이용주민의 고객회원
환

43/ 31

돌봄플러스 지원 통계(재가)

[2020.08.01 ~ 2021.03.31기준]

돌봄영역	공급기관	서비스 내용	누적 인원(명)	제공 건수(시간)
주거 돌봄	사회적기업 인스케어코어	특수청소 및 대청소	11	121
		해충방제 및 항균/항바이러스	0	0
	광진지역자활센 터	이불빨래	2	4
		소수리 및 소독	54	133
		대청소	16	64
	라이트라이프	정리수납	14	75
영양 돌봄	사회적기업 복지유니온	효반+일반식	419	13,774
	광진지역자활센 터	식사배달	419	13,774
요양돌봄	늘푸른돌봄센터	노인돌봄(동행)	132	2,984

44/ 31

돌봄SOS사업 통계(동별)

*광진구

[2021.01.01~03.31기준]

총인원	1,161 명
자양동	212 명
구의동	285 명
중곡동	400 명
군자동	68 명
능동	64 명
화양동	59 명
광장동	73 명

*총 지원 사례 수 :
1,161명

45/ 31

돌봄식당 운영

* 돌봄식당1호



제공) 현미영양식 및 연하도움식, 반찬배송
공간) 지역주민대상 안전하고 영양있는 식사제공

- 노인 회원 관리를 통한 마케팅 강화
- 커뮤니티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 건강스마트헬스케어 구축



46/ 31

돌봄식당 운영

*돌봄식당2호
점



- 늘푸른돌봄센터, 중곡권역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서 추천된 영양취약계층 대상으로 무료식사제공중. (재가 배송 포함)



돌봄식당 운영

*돌봄식당 확대 운영 및 계획

2016년 10월 돌봄식당1호점



2018년 8월 돌봄식당2호



2020년 자양권역 돌봄식당3호점(계획)

2022년 군자권역 돌봄식당4호점(계획)



<http://www.dolbomplus.net/>



[돌봄소개](#) [돌봄서비스](#) [돌봄식당](#) [스마트헬스케어](#) [쇼핑몰](#) [커뮤니티](#)

[주거돌봄](#) [영양돌봄](#) [정서돌봄](#) [요양돌봄](#)



DB+
특수청소 서비스! 인스케어코어 DB+ 도우누리
교육받은 전문 인력이 전문 위생 장비를
이용하여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해주는
주거돌봄 서비스입니다.

 주거돌봄	 영양돌봄	 정서돌봄	 요양돌봄
--	--	--	--

고객상담센터 02.2039.8280 02.2039.8290	열린밥상 건강한 한 끼 어르신들을 위한 영양균형식 호빈입니다. 	복지유니온 스마트 헬스케어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제공 
---	---	--

토론문

변화하는 사회서비스에 따른 자활사업의 역할과 방향

이상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선임연구원

변화하는 사회서비스에 따른 자활사업의 역할과 방향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선임연구원 이상아

자활사업 내 사회서비스의 영역의 역사와 경험

2008년부터 실시된 전자바우처 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정부 주도의 사회서비스 확대 공급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지역자활센터들은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대 전부터 돌봄 영역의 주요한 서비스 공급자였다. 이른바 5대 표준화 사업 중 하나가 간병사업이었고, 사실상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었다. 2001년부터 우정사업본부의 ‘무의탁 환자 무료간병 사업’, 2004년부터 진행했던 ‘가사간병도우미파견사업’, 2005년에 SK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시작된 ‘장애통합교육보조원사업’, 2006년~2009년에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진행된 ‘비추미산모 봉사단’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후 그 기반을 가지고 2006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2007년~2009년에 진행된 ‘보호자 없는 병동 간병 파견 사업’ 등 정부 주도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안정적 공급자로서 역할을 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사회서비스가 확장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다.

<표 1>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업종별 현황(2003)

(단위: 개(%))

간별	간병	건설	설비	세차	세탁	식품	의류	재배	재활용	청소	파견	기타	합계
4	43	34	2	7	5	28	9	5	17	27	3	7	191
(2.1)	(22.5)	(17.8)	(1.0)	(3.7)	(2.6)	(14.7)	(4.7)	(2.6)	(8.9)	(14.1)	(1.6)	(3.7)	(100)

주: ‘기타’를 제외한 각 연도의 최다 사업업종 3순위는 회색으로 표시

자료: 중앙자활센터(2016). 자활사업통계자료집

이후 정부 주도의 사회서비스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인 국가 재정이 투입되었고, 사회 서비스 공급의 총량도 폭발적으로 증가¹⁾하였다. 이에 전통적인 사회서비스의 공급자였던 비영리사회복지조직이나 지역자활센터뿐만 아니라 영리 조직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자활사업은 간병, 도시락, 산모도우미, 장애통합 등 사회서비스 업종이 주된 사업단의 일감이었기 때문에 민간 영리 서비스 조직들과의 경쟁구도 속에서 안정적 일감 확보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2년부터는 자활근로사업의 기본방향이 ‘정부재정지원사업의

1)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한 2008년 6월을 기준으로 2010년 4월까지 전체 장기요양시설은 평균 3.2배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요양시설은 2.7배 그리고 재가시설은 3.4배가 증가하였다(선우덕, 2010). 또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은 2008년 총 4,020개에서 2010년 6,382개로 증가하여 꾸준히 증가하였다

자활사업 연계 활성화'를 명시함으로써 정부에서 공공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자활사업으로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자활사업의 안정적 시장을 확보하려는 방향성을 드러냈다.

<표 2> 자활사업 업종별 현황(2012)

(단위: 개, %)

간병	도시락	산모도우미	세차	세탁	영농	음식물 재활용	음식점 (외식)	장애 통합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 활용	환경 정비	기타	합계
272 (9.6)	60 (2.1)	11 (0.4)	35 (1.2)	81 (2.9)	181 (6.4)	8 (0.3)	150 (5.3)	116 (4.1)	170 (6.0)	350 (12.4)	149 (5.3)	15 (0.5)	1,223 (43.4)	2,821 (100)

주: '기타'를 제외한 각 연도의 최다 사업업종 3순위는 회색으로 표시

자료: 중앙자활센터(2016). 자활사업통계자료집

그러나, 사회서비스의 공급이 대부분은 위탁, 바우처, 구매계약 방식 등으로 민간의 비영리·영리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간접 제공이 고착화 된 상황에서 자활사업이 민간 영역과 사회서비스 공급시장 안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2012년부터 자활사업의 기본방향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를 입증하는 단면이다.

2012년~현재 기본방향

- 「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의 5대 전국표준화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되,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자활사업 연계 활성화 및 영농·도시락·세차·환경정비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
- * 예시) 정부양곡배출사업, 영양플러스, 장애인통합교육보조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자활사업안내

<표 3> 자활사업 업종별 현황(2022)

(단위: 개, %)

[illegible]

자료: 자활정보시스템 위자료

자활사업 내 사회서비스의 영역 방향

현 시점에서 자활사업은 한국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나가야 할까? 최근 정부는 약자복지의 정책기조 위에서 사회서비스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추진 방향은 아래와 같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2022. 6. 16. 발표)	보건복지부 업무계획(2023. 01.09)
• 함께 가는 행복경제-복지시스템 고도화: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 제공 • (민간 참여 확대)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규모화, 다변화 지원 - 모태펀드 및 사회적 금융을 통한 다각적 투자 확대 방안 모색 - 소규모 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성장전략 수립 지원 - 혁신적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 양해각서(MOU) 체결 •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신규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공급 추진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실증 - 수요자의 지불능력,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본인부담금 차등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 수요 확대 • (인프라 보강)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 정보 플랫폼 제공,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민간의 사회서비스 공급 적극 지원 -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거점기관으로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민관 협력 강화	•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대상을 확대(본인부담 차등)하고 고품질 서비스(융합·통합형)를 제공. - 긴급한 돌봄 공백을 채우는 틈새돌봄, 새로운 수요에 맞는 생활형 사회서비스(가족돌봄청년 등 3.2만 명)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 • 공급 측면에서는 신규·미흡기관 컨설팅, 규모화·조직화 지원을 통해 영세한 민간기관의 역량을 강화. •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돌봄로봇, 보조기기 등 R&D 확대, 투자펀드 조성(140억 원) 등을 추진. • 또한 체계적인 혁신을 위해 범부처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 계획(’23~’27)」을 수립하고 사회서비스원도 확대·개편할 예정. • 지역사회 중심으로 노인 돌봄 체계를 전환 •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재가급여를 확충하고, 다양한 재가급여(간호, 목욕 등)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도 확대 (31→50개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확대(50만→55만 명)하고 Io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총 30만 가구) 등 스마트돌봄을 추진 • 가칭노인 친화형 공동주택 등에서 돌봄·의료·여가 등 복합서비스를 누리는 지역사회 거주방안도 마련할 계획

정부의 추진방향의 핵심 쟁점과 자활사업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규모화와 다변화 기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급 생태계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공급자의 혁신을 유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강한 공급자가 진입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자활사업단 “비영리 민간 주도의 책임감이 확보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주된 공급자라는 인식을 지역사회 내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 첫 단추로써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 및 돌봄협의체에 지역자활센터가 포함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일부 지역 조례에 따르면, 실무협의체의 "고용·주거·교육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가 실무위원의 자격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 자치법규상의 참여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지역자활센터가 포함되기 위해서, 시군구 자활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 협조와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민관 협력 기능 강화, 통합 재가 서비스 확대 등이 예상됨에 따라 자활사업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등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신규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2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에 따르면, 수요자·제공자 참여형 서비스 모델이 신규 사회서비스 모델로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 모델은 수요자나 제공자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추진하는 모델이다. 이에 지역자활센터는 적극적으로 지역 내 욕구들을 파악하여, 사업모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자활사업 중도 탈락자, 자활사업 참여 이후 조건부 수급 탈락자 등 지역 내 사각지대 대상자들을 가장 먼저 접하는 지역자활센터가 그들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주거, 식사, 가사간병, 청소 등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모델을 제안하여,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이자 수요 주체로써 역할을 통해 사회서비스영역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Io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총 30만 가구) 등 스마트 돌봄을 추진되는바 자활사업의 사회서비스 업종도 이에 기반하여, 대인서비스 중심에서 스마트 돌봄서비스로서의 전환이 요구된다. 예로 시니어 ICT 일자리(스마트 돌봄 매니저: 단순 기계점검 및 설치 등)와 같이 기존 자활사업단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와 연계 진행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다각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규·미흡기관 컨설팅, 규모화·조직화 지원을 통해 영세한 민간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되는 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내 소규모 사회서비스 자활기업의 확장을 모색하는 데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2023년 3월 기준) 사회서비스(청소, 간병, 집수리, 산모도우미, 보육, 장애통합돌봄 등) 업종 10인 미만 자활기업 369개소로 전체 등록된 자활기업 중 37.5%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자활기업의 지원 범주가 사회적 경제 영역보다 적은 점,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요구되는 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취·창업의 창구를 마련하는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한 지원제도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이 지역 내 사회서비스 주요 공급기관이자 수요기관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 즉, 자활사업이 사회서비스의 책임성 있는 공공과 민간 혼합 인프라로써 적극 활용, 부상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네트워크와 소통과 합의된 인식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부산광역시자활센터



(사)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